

憲法 지켜나갈 후보 뽑아야 한다

11월 26일에 대선후보등록이 끝나고 2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등록하였다. 금년 대선의 화두였던 안철수는 야당의 구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자폭을 선언하였다. 중간세력으로 등장했던 정치쇄신의 선봉장이었던 안철수가 사퇴함으로써 여야는 좌우익전으로 극심한 선거전을 벌이게 될 것 같다.

그 동안 후보단일화 파동에 휩싸여 실종되었던 선거공약의 검증이 옳게 되지 않았고 후보등록 후에야 선거정책을 내거는 정당조차 없지 않다. 20일간의 대선 운동기간에 국민들은 과연 이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선거판에서는 이미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리전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포퓰리즘에 휩싸여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 인신공격이나 과거사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없지 않다.

인신공격 휘말릴 위험

과거사는 다 공과가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인권탄압, 헌정질서유린이라는 과(過) 대신 경제개발, 국민생활발전, 군사력 강화, 조국 근대화의 큰 공(功)을 세웠다. 과거 노무현은 탈권위주의, 서민과의 소통이라는 공을 세웠으나, 국론분열, 한미외교불안, 물가양등, 빈부격차심화 등의 과의 측면이 많았다. 만약에 이들 후계자의 과거에 집착한다면 이번 대선이 가지는 미래한국의 국민통합건설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은 자기를 당선시켜 준 정당을 해산하고 새 정당을 창당하여 여권 내에서조차 분열을 일삼았다. 기분 내키는 대로 좌충우돌하여 외국과의 동맹관계도 불안하게 하였다. 가족·친척 관리조차 못하여 마침내 자살이라는 비극을 연출하였다. 장래의 새나라 건설을 하기 위하여 봉하마을에 소정치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야망에 찬 전직 대통령 부인이 바위에서 투신했을 때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주군을 죽음으로 몰아간 친노파들과 그 옹호세력이 5년전에는 폐족을 자처하다가 5년 만에 다시 대선 선수로서 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풍운아 박정희의 과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과를 자식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연좌제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박근혜가 유신긴급조치를 주도했다든가 인혁당 사건을 지시했으면 박근혜

에게 과를 물어야 할 것인데 당시 그는 대학생에 불과했었다. 자살한 아버지를 가진 처나 가족은 외화반출사건 등에 있어 서면조사로 끝났으나 살아있는 대통령을 가진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특검에 소환되고 그 큰 아버지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과거사를 캐려면 10·4 남북회담의 비밀누취록과 노무현 대통

특별기고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령의 중수부 수사기록부터 공개해야 한다. 이제까지 고인의 예우를 생각해서 사자의 평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덮어 두었던 구정권의 비밀부터 폭로되어야 한다. 이 때 이를 보좌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것은 당연하다. 과거사 네거티브 선거는 한국정치의 아킬레스건이다. 병풍을 야기한 김대업이나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대한민국의 소행이라고 우기는 자, 김현희의 KAL기 폭파사건을 대한민국의 공작으로 우기는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결과는 뒤바뀌었다. 이런 국가변란사범을 1~2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방면하는 등의 선거범죄 처리는 국가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허위사실공표 엄벌해야

이번 대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제252조) 등은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인터넷이라든가 facebook, SNS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그 신속성과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선거결과를 왜곡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 실명제라든가 SNS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익명의 우편이나 전신전화 등에 의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선거질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경찰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사범들을 신속히 적발하여 선거기간 내에 그 범죄를 확정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8대 대선에서는 후보가 소속하는 정당의 공약에 허위가 없는가를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제18대 대선의 공약은 양당이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증진, 국민대통합 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차별을 알기 쉽지 않다. 특히 야당은 대선기간 중에 중요공약을 발표하고, 표를 호소할 것이라 하니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도 일반적 복지를 적용하여 모든 유아, 소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모든 노인에게 노인복지수당을 주며 모든 환자의 의료비용은 월 100만원 이하로 하고 99% 백성은 감세하고 1%의 부자만 증세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확대에 필요한 예산액은 숨기고 그 조달방법은 추측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은 시민사회의 대표자회의나 기자클럽, 방송기자클럽, 편집인협회 등이 주동이 되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도 여당과 야당이 다 부르짖었다.

과거사 네거티브 선거 이제 그만 복지공약 허위 없는지 살펴봐야

대한언론인회 2012송년회 고회회우축하연 함께 열려

12월 20일 오후6시 프레스센터 20층

대한언론인회는 12월 20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올해 고회(1942년생)를 맞이한 회우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축하연을 베푼다. 이날 축하연엔 제13회(2010년도) 전국 민요경창대회에서 명창부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승은씨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이승은씨는 서울예술대학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김혜란선생으로부터 경기민요를 사사받은 명창이다.

(회원 여러분께는 이 기사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올해 고회를 맞은 회우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괄호 안은 전직)

강병우(KBS 편성본부장)	안건혁(경향신문 문화부장)
고학용(조선일보 이사대우 논설위원)	오인문(한국일보 주간여성부장)
구월환(세계일보 편집국장)	유무정(문화방송 해설위원)
김 화(경향신문 편집위원)	이대영(국민일보 편집국장대우)
김길홍(경향신문 편집부국장)	이병국(한국경제 편집부국장)
김선기(KBS 해설위원)	이상갑(KBS 해설위원)
김지용(서울신문 편집부장)	이원창(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준호(동아일보 부국장)	이윤래(한국경제 편집위원)
민정기(대한일보 기자)	이종문(KBS 영상취재부장)
박기정(동아일보 편집국장)	이태자(경향신문 기자)
박석홍(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장기호(신아일보 사회부장)
박영길(한국일보 편집국장대리)	정재필(한국일보 사진부차장)
박준구(동아일보 편집부국장)	조규만(한국경제 기자)
백환기(동아일보 편집위원)	조규석(세계일보 논설실장)
성낙오(동아일보 편집국장대우)	한동희(매일경제 편집국장대리)
송경섭(KBS 뉴욕지국장)	황종건(동아일보 사진부장)

2면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전망 확실한 인물 선택이 최선

18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과 국가발전' 긴급토론

“국민은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던져주는 전망적 자질을 갖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보수성향과 부드럽고 합리적 진보성향을 상호존중하면서 국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함성득 고려대교수는 11월19일 대선을 한달 앞두고 대한언론인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선택과 국가발전’ 주제의 대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학의 권위자이기도 한 함 교수는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입법적 성공을 이끌어 낼수 있는 입법적 리더십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긴급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인사말을 통해 “누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전 문화일보 사장)는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폭풍이 휘몰아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쟁점이 선명하게 부각돼야 한다. 대통령이 입법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입법권 수행에서 국민들과 유리된 국회의원들이 우선 새로



회우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을 이룬 대토론회장.



인사말하는 홍원기 회장.

국민의 선택과 국가발전 긴급 토론 개요

- 일 시: 2012년 11월19일(월) 오후2시30분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제발표: 함성득(고려대 교수)
- 지정토론: 남시욱(세종대 석좌교수)
신대근(전 MBC보도제작국장)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
최희조(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 사 회: 문명호(대한언론인회 주필)
- 정리: 최희조 편집위원 · 사진: 이보길 편집위원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 중앙일보논설위원은 앞으로 5년은 대북정책과 경제가 가장 중요하며 경제위기도 그렇지만 북한의 급변사태가 터졌을때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은 통일과 저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대근 전 MBC보도제작국장은 장밋빛 공약이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능력의 기초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최근 일본의 실패와 독일의 성공사례에서 유권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조 전 문화일보편집국장은 ‘경제민주화와 성장동력’의 두 트랙을 내세우는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와 ‘시장 재벌 중심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민주화’를 내건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중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국가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

1면에서 이어집니다.

경제 민주화의 내용은 경제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가 경제에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용은 자유방임주의에서 경제계획의 도입까지 다양하다.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의 논쟁이기도 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재벌기업의 해체라든가 대기업의 해외도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당도 경제의 민주화원칙은 찬성하나 소급입법은 반대하고 있고 재벌해체는 반대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소득향상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조화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국제경제의 불황속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의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개발에 있어서 지나친 과욕은 금지된다고 하겠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은 막아야 하겠다.

현재 한국이 직면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교·안보정책이다. 중국의 세대교체가 행하여졌고 일본이 12월 16일 총선거를 실시하고 미국이 내년 1월 20일에 오바마 제2기 정권이 들어서는

등 주변 국가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중심정책으로 방향을 돌렸고 중국포위작전으로 나와 긴장이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과 일본이 국수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불안정한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 구한말과 같은 4대 강국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우리의 국익을 위하는 길은 무엇인지 여·야당의 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한미동맹강화, 일본·중국과의 협조, 자주국방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남북평화협정의 체결, NLL의 무방비화, 북한핵무장외면, 제주해군기지반대, 한미FTA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평화의 지렛대 국가로 미국·중국·일본을 조정하겠다는 망상은 반미주의, 친북좌파노선을 놓고 말았다. 안철수 무소속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이 정책과 달리 안보에는 보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가 퇴진한 뒤에 급진좌파적인 파주기 정책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지 모른다.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앞으로 5년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다. 여야가 이념

으로 다투고, 지역간 대립이 횡행하고, 세대간 이익이 다르고, 근로자와 자본가가 대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하고, 근로자도 조합근로자와 비조합근로자가 대립하며, 학생들이 선생과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국가의 권위가 서지 않으며 행정의 능력이 저해되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질 위험조차 없지 않다. 그 동안 여러 정권이 구정권이 행한 불법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했지만 아직도 이러한 국민분열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는 개원하기만 하면 여야 대립으로 난장판이 되기 일쑤였다.

현재의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 개개인보다는 공약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확실한가를 따지는 것이다. 안철수 무소속에 대하여 무소속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멸렬한 야당에게 국가원수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초반에 여소야대현상 때문에 탄핵을 당하여 한동안 직권행사가 중지되었다. 임기 말에는 자당 국회의원들에 떠밀려 당적을 포기했다.

후보가 속하고 있는 정당이 합리적인 정당인지 때만 쓰는 구태의 전형적인 정당인지를 분간해야 한다. 19대 국회의 여·야당은 친북좌파인 특정 국회의원 2명을 제명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문제 특검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합의했으나 동시에 약속한 친북좌파의원의 제명을 미루고 있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정당과 다시 정권연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선거 때 연대하였던 당이기에 은혜를 갚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도의적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의무까지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신성한 국민대표기관에 친북좌파의원이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그 놈의 헌법’이라고 헌법을 무시하고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은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된다. 국민은 이번 대선에 있어 개인 후보보다도 그 집단이 호헌의사를 가졌는지 법률집행의지가 있는지부터 검증하여야 하겠다. [E]

보수-합리적 진보 아우를 정책 필요

18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과 국가발전’ 긴급토론 주제발표

선택의 중요성

대한민국은 저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와 청년실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김정은 체제하의 불안정한 대북관계 등 외교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2월 19일 우리 국민은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미디어에 비쳐지는 대선 후보들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누가 훌륭한 자질을 지닌 인물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자질, 비전과 핵심 정책, 참모진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대중에게 ‘선택의 잣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대통령을 연구하는 대통령학 학자로서 어떠한 자질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현명하고도 미래지향적인 선택인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질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미국의 정치학자인 찰스 메리엄(Charles Merriam)은 보편적 자질론 관점에서 ‘고도의 사회적 감수성’(a high degree of social sensitivity), ‘고도의 친근성’(a high degree of facility in personal contacts), ‘집단을 이끄는 재능’(great facility in group contacts), ‘극적인 표현능력’(facility of dramatic expression), ‘정책이나 전략을 만드는 능력’(facility in invention, whether formulas, policies, or plans), ‘고도의 용기’(a high degree of courage) 등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성공한 지도자의 핵심적인 자질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자질의 주장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덕목과 자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상황적 자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시대가 다르면 지도자도 달라야 한다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성공하는 대통령의 핵심적 자질을 추출하는 것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과 비교하여 국정운영에 상대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에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유산이 잔존하며, 우리만의 독특한 대통령문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통령의 자질 요인이 여타 대통령제 국가보다 국정운영에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의 경향이 높았던 한국 대통령들의 자질 분석을 통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자질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제자립을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지적능력에 기초한 ‘집단을 이끄는 조직능력’과 ‘정책이나 전략을 만드는 정책결정능력’ 등의 리더십을 성공적인 대통령의 자질로 손꼽

기도 한다. 그러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소수의 카리스마적 리더가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주의로는 더 이상 대담과 갈등을 피하면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냉철한 상황판단과 효과적인 대안의 제시를 위해 뛰어난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역대 우리

함성득

·고려대학교수
·대통령학



역정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 판단에 기초한 ‘회고적 자질’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국정비전과 경험 등의 국정능력자질은 평가대상 인물의 삶의 역정에 기초하여 앞으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서 ‘전망적’(prospective) 판단에 기초한 ‘전망적 자질’을 의미한다. 전망적 판단에 기초한 비전 제시 능력이 무엇

전제시 능력의 기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겪은 삶의 발자취에 대한 회고적 판단이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에 대한 전망적 판단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 시스템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후보자의 회고적 자질에 기초하여 대통령을 선택하기 보다는 비전제시 능력을 강조하는 전망적 자질에 기초하여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국회와 원만한 관계 중요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하는 대통령도, 좋은 정책도 그 시작은 정치이며, 정치의 기본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선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대전환이 예고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바로 ‘수권능력’ 또는 ‘통치능력’의 제고이다. 수권능력은 문제파악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능력’과 정책의 집행을 위한 ‘정책조정능력’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들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하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국정비전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은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던져주는 전망적 자질을 갖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새롭게 선출될 제18대 대통령은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 성향과 부드럽고 합리적인 진보 성향을 상호 존중하면서 국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새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적 기관인 ‘국회’와 원만한 관계 속에서 수립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입법적 리더십’(legislative leadership)을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의 완성은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의 통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새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높아진 정치·제도적 기관들의 자율성을 인식하고, 그가 직면하는 정치적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양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입법적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국회]

국회설득 입법적 리더십 발휘 대화-타협으로 국정 이끌어야



열기로 가득찬 토론장.

대통령들이 모두 남부럽지 않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뛰어난 지적 능력에서 비롯된 지나친 자신감과 과도한 우월감은 여야관계나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어 원만한 정책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시대와 상황에서 ‘좋은 자질’이 다른 경우에는 ‘나쁜 자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지적 능력과 카리스마적 리더십 같은 대통령의 자질은 상황적 자질 측면에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시대에는 바람직한 자질일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발전국가 이후’(post-developmental state)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한 자질이 되지 못한다.

전망적 자질과 회고적 자질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미국의 자질연구들은 성공한 대통령의 바람직한 자질로 국정비전과 경험, 정치력 등을 중요시하는 ‘국정능력자질’(competence)과 도덕성, 정직성 등을 강조하는 ‘인격자질’(character)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질 중 도덕성, 청렴결백성, 강직성, 정직성 등의 인격자질들은 평가대상 인물의 삶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어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의 중요성

우리의 정치적 현실의 어려움은 회고적 판단의 기초인 ‘과거’는 ‘사실’로 존재하여 확인하기가 쉽지만 전망적 판단의 기초인 ‘미래’는 ‘가능성’으로 존재하여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전망적 판단의 근거라 말하지만 시간에 쫓겨 후보자 자신의 깊은 삶의 과정에서 아닌 참모들에 의해 급조된 단순한 장밋빛 공약이 미래에 대한 비

대한언론인회 ‘언론인장(葬)’ 높이 평가

조선일보 데스크칼럼

조선일보는 지난 11월 17일자 A30면 ‘조선데스크’란에서 대한언론인회가 실시하고 있는 ‘언론인장’이 언론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철

조선일보 사회부차장이 집필한 이 기사는 “대한언론인회가 시행하는 언론인장이 약력보고 추모사 헌화 등으로 10여분 진행되는 간단한 의식이지만 유족이 그렇게 고마워 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회]

안보-경제 정책 냉철한 평가 내려야

18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과 국가발전' 긴급토론 요지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960년 대선에서 이제 미국이 다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케네디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뒤 취임연설에서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 운동기간 중 향후 4년간 미국의 전진(forward)을 외쳤습니다. 대선을 꼭 한달 앞둔 시점에서 대한언론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안보, 경제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이 시대와 국가를 잘 이끌어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떤 특정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이번 대선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대선은 일찍이 한국정치사에도 없었어요. 함 교수가 5년 전에 이명박(MB) 대통령 당선 직전에 MB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 할 수 있나,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함 교수 말이 딱 들어 맞았어요. 학자로서 용기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함 교수 말씀대로 이번 대선 후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하면 어느 한쪽 편이라고 하겠습니까만, 어느 분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입니다. 여기에는 언론의 책임도 큼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 폭풍이 몰아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대선후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일반이 보면 모를 정도로 복지정책이나 대북정책까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보면 분명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 쟁점이 선명하게 부각돼야 합니다. 안보 통일 경제회생 복지문제 등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토론을 통해 밝히면 전문가나 여론 형성층이 판단을 내려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한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로 토론도 안 되고 정책을 누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시다.

제일 실망스러운게 정치평론입니다. 정치평론가는 왜 그렇게 많은지, 헛소리 하고 교묘하게 한 쪽 편드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무력감마저 느끼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 뿌리가 해방직후 생긴 정당인데 실망스럽습니다. 1백만 명이 참여해 공천된 공당의 대선후보가 어떻게 개인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모두 막말을 하지 않는 건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남시욱 토론회



신대근 토론회



김진 토론회



최희조 토론회

비슷한 공약 토론 통해 가려야 통일 국면 이끌어갈 자질 필요

함 교수는 입법적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국가로서 미국과 다르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은 남용하는 게 문제이지 법대로 하면 됩니다. 함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실패한 대통령은 야당 국회와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전제조건으로 국회가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대선 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권 타도 운동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제헌국회와 2대 국회까지는 좋았는데 3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유권자들과 동떨어져 귀족 같은 존재인 비슷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새로 태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명호 사회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함 교수가 지적 했지만 대통령이 갖춰야 할 요소로서 저는 보편적 자질과 특수한 자질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보편적 자질은 인격과 교양, 대통령으로서의 법과 질서, 권력제도에 대한 이해 등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

편적 자질에 실패한 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공한 CEO였지만 정치권력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편적 자질로서 특히 법과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5년 통치기간 내내 좌파의 인천 맥아더 장군동상 파괴 시도를 비롯, 평택 미군기지 건설 현장에서의 시위대의 군인 가해 사건 등은 안보부문에 대한 자질부족을 드러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일과 만나 얘기한 것으로 전해지는 월간지의 보도내용들은 충격적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보편적 자질을 상당부분 갖춘 수준이어서 10년전 노무현 후보 때보다는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제2의 노무현, 혹은 노무현 아바타라고 하지만 기본자질에서 노무현처럼 혼란스럽고 돌출적인 면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리더십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 안보면에서는 노무현 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대행 역할을 하는 등 뛰어난 보편적 자질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보편적 자질은 여성성이 갖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권력 율타리 안에 머물러 현실감각과 인식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50%가 특수자질입니다. 사회가 성숙하고 발전할수록 보편적 자질부분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수자질은 상당부분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안보 군사부문에서 그렇습니다. 향후 5년간엔 대북정책과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재발을 개혁하느니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일자리문제가 심각합니다. 과도한 복지지출도 그렇고 집권 후 포퓰리즘 대선공약을 제대로 지킬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5년간 변화는 경제위기도 그렇지만 북한의 급변사태가 터졌을 때 더 큰 문제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벼랑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운명이 좌우됩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통일국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수자질을 갖춘 지도자라야 합니다. 60점 70점 후보라도 뽑아서 나머지는 국민이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통일과 저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겠습니다.

신대근 (전 MBC보도제작국장)

3개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3년전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두 가지 선심 공약 때문에 자민당은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내 놓았죠. 유권자들에게 가장 어필했던 공약은 “아동 양육수당을 100% 인상하겠다”는 것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한지 얼마되지 않아 민주당은 두 공약을 지킬수 없어 국민에게 사과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뒤 3년간 자민당은 민주당 정부를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국제

5면으로 이어집니다.

實錄 - 언론·언론인의 길② ‘그때 그현장 못 다한 이야기’ 출간

본회 회우 42명 집필
12월 4일 출판기념회

서평

역사의 조각보 맞추는 작업

대한언론인회는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 현장 못다 한 이야기’ 제2집을 출판하고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사정상 지난 회보에 공지해 드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기로 양해바랍니다)

‘실록 언론 언론인의 길-’은 원로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엮은 것으로 본회 회우 42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집필자 명단

(괄호 안 전직, 가나다순)

곽찬호(경제통신 이사) 권

영국(CBS 해설위원장) 금창태(중앙일보 사장)김선기(KBS 해설위원) 김수웅(KBS 라디오편성국장) 김은구(KBS 이사·경영본부장) 김주철(KBS 국제방송국장) 김진걸(한국일보 체육부장) 김충한(한국일보 도쿄지사장) 김 화(경향신문 편집위원) 박명근(MBC 부국장·속초 지사장) 박석흥(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 박응칠(KBS해설위원) 서병주(KBS 라디오 본부장) 성낙오(동아일보 편집국장대우) 손기상(중앙일보 논설위원) 송선무(SBS 심의위원) 신우식(서울신문 사장) 오동환(경향신문논설위원) 유무정(MBC해설위원) 유한준(소년조선 취재부장·아동문학가) 이덕주



(경향신문 정치부장) 이상우(조선일보 기자) 이성춘(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재승(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창열(동양방송 사회부장) 이채주(동아일보 주필) 이태교(한국일보 주일특과원) 장두원(KBS 전주총국장) 정성진(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운종(경향신문 논설위원) 정창기(KBS 기획보도실장) 조광현(KBS해설위원) 조규석(세계일보 논설실장) 조봉균(KBS 감사) 천상기(내외경제 편집국장 대리) 최귀조(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최신호(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최정호(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기호(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한영탁(세계일보 논설위원) 황봉구(동화통신 정치부장)

대한언론인회가 이번에 펴낸 ‘실록 언론 언론인-’에는 현역에서 떠난 언론인들의 취재기와 경험담 42편이 수록되어 있다. 작년에 발행한 제1집에 참여했던 58명과 이번 제2집을 합치면 60대 이상 언론인 100명의 경험담과 비화가 2년에 걸쳐 축적된 것이다.

격변하는 현대사를 취재하고 기록하면서 겪었던 사연과 언론인 생활을 하는 동안 처했던 알려지지 않은 사연들은 지면이나 방송 화면에 남기지 못한 상태로 세월이 흐른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도 있고 제작 현장에서 마주치는 애로를 극복하면서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비화도 있다. 그대로 물어둔 채로 당사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난다면 흔적 없이 사라질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책에 엮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은 의미가 크다.

역사는 기록이다. 그리고 기록은 영원하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 대화, 연설, 세미나는 역사이지만 역사의 자격에서 탈락한다. 기사와 방송 화면으로 보도된 기사라도 이면을 알지 못하면 진실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인들의 회고는 흥미와 동시에 역사의 소재를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책은 42명의 언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몸으로 부딪쳤거나 눈으로 보았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



정진석

·한국 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

의 조각보이다. 언론 분야에 국한된 역사일 수도 있고, 현대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켜 남겨야 할 내용도 있다.

필자들의 경력도 다양하다. 평생을 언론계에 바친 외길 언론인과 언론계 바깥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언론인도 있다.

신문 방송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기자들의 회고담이 실려 있기 때문에 360도 전방위적 시각에서 바라본 언론과 현대사의 증언이라 할 수 있다. 붓을 놓은 지 오래된 선배 언론인과 지금도 현역 못지않게 활동하는 분들이 어우러져 이 책을 매개로 한 마당에 모였다. 언론계를 떠난 선배들의 글을 모처럼 다시 접할 수 있어서 좋고, 그들이 정열을 불태웠던 시절의 비화를 읽는 재미도 있다. 서열로 따지면 제1집에 먼저 수록 되었어야 할 언론인이 이번에 참여한 분들도 있다.

중앙과 지방 여러 곳을 망라하고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던 취재기가 오색찬란하다. 모두가 소중한 글이다. 언론의 역사를 탐구하는 입장을 떠나서라도 이런 책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한다. 퇴역 언론인들이 기록을 남기고 지난날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책은 대한언론인회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4면에서 이어집니다.

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과 정국 불안이 계속된 결과 국정수행이 어렵게 된 민주당 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12월16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을 할 수는 있지만 국익은 크게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그 피해가 유권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독일 슈뢰더 총리가 2003년 '어젠다 2010'이란 이름으로 추진한 개혁은 노동과 연금개혁입니다. 좌파인 사민당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연금 개혁에 나섰을 때 슈뢰더는 이미 실각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슈뢰더 총리의 개혁으로 독일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지금의 유럽 재정위기 와중에서도 독일 혼자만이 튼튼하게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개혁정책으로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

이고 이로인해 프랑스의 경제도 독일의 경우처럼 다시 활기를 찾게될 것입니다. 사르코지가 2년전 폭동을 방불케하는 노동자, 학생들의 저항을 강제 진압하면서까지 강행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개혁정책들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독일 슈뢰더 총리의 경우처럼 10여년 뒤에는 반드시 재평가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죠. 현재의 국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요구하는 후보는 왜 없을까요. 우리 유권자들 만이라도 각종 복지공약이나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같은 사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과연 이들 공약들이 독이 되는건 아닌지, 국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최희조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선후보의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票풀리즘’에 너무나 치우쳐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문에 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배로 늘려 주고, 1인당 의료비를 1백만원이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며,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선심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당과 야당 후보들의 공약이 엇비슷합니다. 복지확대를 내세운 정치권의 ‘票풀리즘’이 갈수록 심해져 이번 대선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경제민주화도 좋고 복지확대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에는 재벌규제와 복지강화 정도를 넘어서는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저해시켰으므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틀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과 대기업중심의 성장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 소수를

위한 성장이 아닌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고용 안정, 비정규직 축소, 임금인상과 복지확대로 가계소득을 올려 내수를 끌어올리자는 주장입니다. 기업규제 완화라든가 부자와 기업세금 감세, 고환율 유지로 대기업 수출을 밀어주고 경제를 성장시켜 낙수효과를 올리려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정책은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모두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는 당장에 경제정책의 틀을 확 바꾸기 보다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 트랙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느 쪽 정책이 과연 국가발전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절실합니다.

美 - 中 새 지도부 시대 한국의 선택

최근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에 재선되고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함에 따라 오바마와 시진핑이 만들어 가는 미래의 미·중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냉전시대의 미·소관계와 달리 미·중관계는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협력의 기초 위에 패권국·도전국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대립요소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바마와 시진핑의 리더십이 교차되는 향후 4년 동안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복합관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오바마와 시진핑은 양국간 협력의 틀을 유지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새롭게 권력을 이양받은 시진핑은 향후 2~3년 정도는 다양한 국내문제를 처리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갈등하기 보다는 협력을 통한 안정적 관계 유지를 선호할 것이다. 오바마도 재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재정절벽 등 아직까지 경제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혀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 미·중 양국 간의 갈등요소도 첨예하다. 제18차 당 대회에서 밝힌대로 시진핑시대의 중국은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안보이익을 실현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고,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주권과 발전이익을 확실하게 지키는 단호한 외교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 대표되는 시진핑의 대미관계 구상을 검토해 보면,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추

구하고 있는 중국은 주권이나 영토, 내정 문제 등 핵심이익으로 판단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갈등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지역분쟁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

특별기고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로 아직도 동북아시아 안보불안정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에서 점차 그 전략적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우선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2·29합의 이후 북한이 장거리

의 이견 및 대립을 완화시키고 좀 더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선조적·중재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중 모두와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한·중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의 경제 협력을 빠른 속도로 증진시켜가고 있다. 이제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관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과 동반자는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생존의 핵심축이다. 한·미동맹을 조정하여 한·중관계를 강화하지는 친중적 주장이나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면서까지 한·미동맹을 강화하지는 친미적 주장 모두 우리의 국익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등거리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도 그리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동맹과 동반자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강대국관계에서 이 양자를 등거리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중간의 협력이슈들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막후채널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한 미·중사이에서 보다 유연하고 균형잡힌 태도로 두 나라와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외교적 공간 속에서 안보와 번영을 확보할 수 있다. [4]

동맹-동반자 등거리 유지 어려워 이슈 개발 막후채널 넓혀갈 필요

도를 구체화하자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봉쇄정책으로 이해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힘의 확장’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택한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최근 탐재기 이착륙 훈련을 마친 중국의 첫 항공모함 라오닝(遼寧)호의 두 번째 훈련을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동아시아를 무대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과 경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 국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북한의 좀 더 근본적이고 진정성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통적 전략목표에 집중하면서 북한 정권의 생존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경제회생을 하도록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미·중관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이견이 좀 더 분명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양국 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양 강대국 사이

오바마 재선 축복이나 재앙이나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재선이 경제에 축복인가 재앙인가.

그의 집권1기는 경제적으로 크게 내세울 것이 없다. 리먼 브라더스 등 국제투자금융회사들을 격침시킨 월가의 금융대란수습이 주요 과제였으나 그것은 버냉키 미연방준비은행(FRB)이사회의장의 몫이었다. 오바마대통령으로서는 미국경제의 전통적인 취약점인 재정적자의 팽창을 억제하기위해 의회와 재정적자억제 타협안을 타결, 재정건전화의 길을 열었어야 했다. 여기에 실패했다. 파장은 컸다. 미국경제의 신용평가절하, 경기회복의 부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등 경기침체를 장기화했다. 재앙적인 것은 미국경제를 재정절벽(Fiscal Cliff)위에 서게 한 것이다. 경제체질을 악성화한 것이다. 오바마의 ‘부자증세’와 공화당의 ‘복지, 국방비등 지출감축’이 타협없는 대결 끝에 결국 파국을 가져왔다. 재정부채만 눈덩이가 됐다. 그와 공화당이 책임을 나눠지지 않을 수 없다. 집권 2기의 오바마대통령은 당연히 재정절벽위기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지난해 제정된 재정관리법에 따라 연말까지 재정적자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 새해부터 부시행정부시절의 감세가 시효만료, 전면적인 증세

가 이뤄지고 복지와 국방예산의 부분감축등 세출삭감이 발생한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이것은 연간 약7000억 달러의 개인소득감축과 같다. 국내총생산액(GDP)의 5%에 상당하는 규모다. 연간경제성장률이 겨우 2%인 미국경제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미의회예산



이재승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G1)의 수장으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야할 오바마대통령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미국자체의 위상이 실추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역사적 손실이다. 때문에 오바마대통령이나 공화당의 회지도자등 양측이 이번에는 초당적인 재정적자감축합의안을 도

세계의 유력 언론들은 그에게 포용력의 발휘와 능률제고를 촉구했다. 미국의 타임지는 선거특집해설(조 클라인)에서 “오바마대통령과 베이너 공화당하원의장이 초당적인 다수를 추구한다면 타협안을 성사시킬 수 있다”며 “선거정치에서 해방된 오바마는 보다 효율적인 정치인”이 돼야한다고 결실의 정치를 요구했다. 영국의 세계적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도 표지논설에서 “이제, 공화당을 포용하라”고 초당적 리더십을 주문했다.

오바마대통령은 자신의 주가(株價)가 상종가인 현재부터 집권2기의 초기까지가 가장 호기다. 재선 약 한주일만인 지난 11월16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의회지도자들과의 재정절벽타개협상이 우호적인 출발을 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월가는 주가상승으로 반응했다. 오바마대통령은 “유익한 협상과정의 시작이었다”고 했고 의회지도부 모두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했다. 이날 오바마대통령은 ‘부자증세’ 등 기본원칙을 재확인했으나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도 “세수증대는 세율의 직접적인 인상이 아니라 세법개

재정적자 감축 합의여부 관전 공화와 타협 2~3개월이 고비

국(CBO)은 재정절벽에 떨어지면 내년 상반기에 0.5%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미국경제는 다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불황의 EU(유럽연합), 침체의 중국, 제로성장의 일본등 취약하고 불안정한 세계경제에도 큰 타격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최대 경제대국

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쪽도 파국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철학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이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인 만큼 타결에는 차원높은 정치력이 요구된다. 이것은 역시 재선에 승리, 그 자신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된 오바마대통령이 창출해 갈 수밖에 없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교육 현장 정치 오염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 재선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쓸쓸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우리의 교육현실이 그러한 칭찬을 들어도 괜찮을만큼 잘 돌아가고 있는가. 한국의 교육체제, 특히 공교육체제는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광복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건국 직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고, 특히 어느 신생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6년제 초등교육의 의무교육 실시는 실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획기적 기초를 마련한 혁명적 조치였다. 그리고 건국 초기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공교육은 지속되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전장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생존이 어려웠던 피난지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삼과 망치를 들고 천막교실을 지어가며 교육은 이어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건국 1세대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이 국가건설의 제1의 동인이라고 믿고 지도자나 국민 모두가 여야가 따로 없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적 합의를 아루어온 것이 우리 사회의 전통과 규범으로 정착되어왔다. 그리하여 그 결실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국가건설과정에 필요한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전문인력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압축된 시간에 국가발전을 진행해나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끈기있게 지속되어 온 한국의 공교육이 그러한 국가발전과 정의 수요에 부응해 주었다. 우수한 인재와 전문인력을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 이러한 국가적 및 사회적 인력수요는 한국의 공교육체제를 확대 발전시키고 한국의 교육수준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하기에 한국 공교육체제의 그동안의 발전상과 효율적 성과를 평가한다면 가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공교육체제는 분열과 혼란의 수렁

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의 한계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그 학부모들은 급기야 공교육체제를 불신하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사교육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공교육 현장은 황폐화되어 붕괴직전의

특별기고



이택휘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연세대 석좌교수

편향된 이데올로기 추방해야 건전한 시민육성 교권 확립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대중을 이루는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은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각종 교육정책과 지침으로 인하여 교육적 지도력을 박탈당한 교사들과 지능이나 도덕성이 미성숙한 청소년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딜레마의 공간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적 변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교육 현장의 폭력과 갈등의 사태는 주로 편향된 정치이념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의해 한국의 공교육이 이끌려왔기 때문이다.

최근의 몇 개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10월 23일 경남 합천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는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50대의 교사가 벌을 주자 그 중 한 학생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달려 들며 교사를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으며, 11월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모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는 여교사 A씨가 수업중에 떠들며 장난치는 한 남학생에게 주의를 주자 이 학생이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며 주먹과

발로 여교사를 마구 구타하여 이 여교사는 전신에 부상을 입은데다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입원 가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술에 취한 10대 3명이 들어와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1학년 학생을 구타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장에서 교사에게 어떻게 교육적 권위를 요구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 운운 할 수 있겠는가.

미성년의 어린학생이 학교내에서 버젓이 담배를 소지하고 다녀도, 교실에서 스마트폰이 교사를 대신해도, 수업 중에 옆드려 잠을 자도, 머리모양이나 의복을 양아치처럼 하고 다녀도, 교사는 교육적 지도차원의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을 강력하게 지도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정의 핵가족체제가 되고 자식을 왕자나 공주로 키우는 학부모를 또한 ‘내 자식’의 권익만을 주장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공교육 기관이 교육적 권위를 가지고 엄격하고 강력하게 교육적 지도를 하기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수준의 학생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미성년자이다. 이들은 지능이나 도덕성이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층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인성교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정밀하고 엄격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초중고등교육의 목표가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공교육에서 요청되는 것은 효과적인 지능발달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공동체의식의 계발인 것이다. 여기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국가관과 보편적 현대인으로서의 세계관을 도덕적 신념으로 갖게 하는 구체적인 교육적 지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이미 낡아버린 구시대적 정치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를 거부하고 획일적 분배평등주의가 전략적 포퓰리즘으로 아직도 작동하고 있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설 자리를 잃고있다. 또 공교육현장이 막장이 되어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존심 있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이제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교육현장을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는 요소들을 청소해야 할 때가 왔다. 교육이 낡고 편향된 정치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7]

6면에서 이어집니다.

정과 탈세방지등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기본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백악관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2단계협상추진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1단계는 올해예산적자를 감축하기위해 적어도 5백억달러를 현금지급(Down Payment)하고 현재 세계를 떨치고 있는 적자 자동감축법안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2013년 부터 10년동안 매년재정적자를 감축, 총 4조달러를 감축한다는 ‘대타협’(Grand Bargain)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10년 4조 감축안은 2010년말 오바마 대통령산하의 보울스-심슨적자문제위원회가 건의했던 안으로 오바마대통령

이 당초에는 거부했으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2단계안은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대타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선 올해적자분을 해소, 시간을 번뒤에 대타협은 그 뒤에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어쨌든 뉴욕 타임스는 첫회담에서 2단계안 추진 합의는 빠른 진전이라 했다.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민주당하원원내총무는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는 예산합의안을 크리스마스 훨씬 이전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낙관했다고 한다. 정치전문지 폴리τικο도 재정절벽에 떨어질 확률은 25%정도라며 재정절벽문제의 극복을 낙관했다.

그러나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대선기간중 오바마저격수로 활약했던 폴

리언 공화당 부통령후보(예결위원장)를 재정적자감축협상의 공화당측 대표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변수다. 그런데 그가 선거후 이전에 반대해왔던 베이너 하원의장의 타협안에 대해 지지로 돌아섰다고 한다. 앞으로 2, 3개월이 고비다. 오바마대통령과 베이너의장의 ‘타협용의’가 실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들은 2011년 적자감축안에 거의 합의했다가 양측 모두 교조세력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다. 베이너의장은 세법개정에 의한 세수증대,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수혜연령의 상향조정,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의 물가보상비과소산정, 국방비감축등 세출감축을 제시했었다. 이번선거에서 교조세력 특히 증세를 극력반대했던 공화당의 티파티(TEA PARTY)그룹후보들이 대거

탈락, 타협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도 초당적 합의도출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의 부자증세는 소득 상위 2%의 최고세율을 33%, 35%에서 각각 클린턴 대통령시절의 수준인 36%, 39.6%로 올리고 나머지 98%의 납세자는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증대추정액은 10년간 1조6000억달러에 상당한다. 전통적으로 백인고소득자들이 고정표인 공화당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재정적자감축합의는 미국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으며 미국경제를 강화시키고 미국과 시장자본주의의 위상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과 북한같은 적들은 다시 한번 미국의 힘을 존경하고 두려워 할 것”이라고 했다. [8]

‘단일화’에 막힌 TV토론 정상화 기대

대통령선거 관련 방송보도에 관해서 지난 호에서도 집중 분석한 바 있지만 때가 때인 만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보도가 현상만 쫓다보니 정책이나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방송사 자체적으로도 정책과 공약에 대한 분석과 검증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이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방송사 입장에서는 취재원인 각 후보가 정책이나 공약을 가지고 유권자와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방문 등 소통을 명분으로 하는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거나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그 어떤 뉴스보다도 정확한 사실보도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여야 하는 대통령 선거보도란 점에서 그나마 기계적 공정성을 지키며 사실 보도가 가능한 것은 각 후보 진영의 발표와 후보의 동정이라고 볼 때 이들이 주요 뉴스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을 것이다.

대변인말 녹취보도 주력

이 때문에 각 후보의 대변인이나 선거대책 본부장의 말을 녹취해서 보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각 후보의 선대본부장, 대변인 등의 녹취내용이 대부분 상대 후보를 헐뜯거나 검증이란 이름으로 이뤄지는 상대 후보에 대한 사실상 비난이어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되고 있고 선거보도 역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최근의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하던 정책선거 위주를 표방하는 매니페스토란 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음부터 이미지 선거요 바람 선거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쇄신이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야권의 이미지 선점 전략과 이에 맞서 국민통합과 안보를 굳건히 지킨다는 여당의 전략 어느 것 하나 국민에게 정확한 목표와 구체적 정책 그리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방송의 정치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책선거 유도 등 원칙적인 방향제시나 현실성 있는 공약 개발 필요성 등을 촉구해 더 이상 이미지 선거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배겨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런 것은 바른 결정이나 아니냐 하는 진실 여부를 떠나 그동안 모든 선거운동을 운동 휘몰아가던 야권 단일화가 무소속 안철수의 후보사퇴로 일단락되고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가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감에 따라 진정한 여야의 정책대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 보도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양 진영의 정책, 공약의 분석과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의 인물과 자질 검증에 집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송

선거 보도가 가능해진 방송환경이 완전히 조성됐다고 보겠다. 사실상 지난 몇 주간 대통령 선거관련 보도는 야권 단일화라는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고 예년 같으면 후보 정책 검증과 자질 검증을 위한 후보 초청 토론회도 몇 차례 실시됐어야 할 터인데 단일화를 두고 새누리당과 야권이 후보초청 대상 적격 내지는

불공평성(박근혜 후보 대 단일야권후보 토론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박근혜, 문재인 정당 후보와 유력후보인 무소속 후보의 삼자 초청 토론이어야 한다는 야권 주장)을 내세운 소극적 대응으로 후보 등록 전에 겨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초청한 단 한 차례의 방송토론회가

V
방송시평



오건환

·본회 회우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것이다.

비단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무소속 안철수 후보’, 올바른 명칭이었는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당연히 후보 등록을 마쳐야 진짜 후보가 되는 것이지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는 정당한 당내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당의 공식 후보이지만 안철수 후보는 어느 날 언론이 갑자기 나서서 유력 후보로 띄우고 여기

에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서 나섰다는 본인의 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부르기 시작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당의 경쟁 절차를 거쳐 선출된 공식 후보와 홀로 결정하고 나선 후보와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무소속

이미지 선거 막을 정책검증 필요 안철수 ‘후보’ 명칭사용 문제있어

열렸을 뿐이다.

그나마 토론이 진행되는 기간에 갑자기 계획된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문재인, 안철수 양 후보의 토론회가 심야에 100분이 편성돼 한국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제까지 대통령 선거 방송은 총체적으로 각 진영과 후보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는 양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 후보등록도 끝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방송은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인 정책개발 유도는 물론 정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도함으로써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편까지 토론중계 높이평가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이나 역사성을 때놓고 방송기술적인 면에서만 볼 때 방송사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양자토론회를 공중파는 물론 종편까지 임시편성을 동시에 한 것은 방송의 의무이긴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란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공중파 등 6개 방송사가 동시 생중계하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의 3자 초청토론회도 몇 차례의 긴급편성 변경을 거치면서까지 성사시킨 것도 높이 평가받을 사항이라고 본다. 하지만 역시 방송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과 시간,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방송토론회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나 역사적 의미와 관계없이 갑작스런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후보사퇴로 그 의미가 물거품이 되고 결과적으로 헛 노력이 되고 만 것은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아쉬움으로 남을

‘예비후보’라든지... KBS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후보사퇴에 따른 후속기사를 약 7대3의 비율로 부정적으로 다뤄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에 흠이 된다는 시청자의 지적과 내부 시청자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감에 따라 이런 공정성 시비 현상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같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이런 지적 역시 나타난 사실과 현상을 외면할 수 없는 방송기자로서는 주요 당직자나 정치평론가들의 발언과 분석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의견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전달하다보니 자연스레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면 지나치게 방송사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닐까?

여하튼 방송사들은 남은 선거 운동기간 깊이 새겨야 할 사항이다. 선거방송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방송의 신뢰도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국민의 선택으로 국가의 운명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방송 보도에서 더욱 세심하게 신경써야 할 점이다.

잘못된 우리말 사용 거슬러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지적이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병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방송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훼손하는 일이다.

물론 아나운서 등 전문 방송인들은 우리말 가꾸기에 앞장서느라 애쓰고 있지만 출연자, 인터뷰이 이들의 잘못된 우리말 사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방송이 우리말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과 14일 MBC 뉴스데

스크에서 단풍과 가을을 주제로 한 보도에 모두 4명의 녹취록을 넣었다. 1분 30초의 리포트에 짧게는 5초 안팎, 길게는 8초 내지 10초의 인터뷰를 다양하게 인서트한 취재기자의 노력은 가상하나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너무’란 부사를 ‘너무너무’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모두 잘못 써 제작자는 자막에서 고쳐 주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방송에서 가장 잘못 쓰는 우리말의 하나가 부사 ‘너무’이다. 이 말은 심지어 전문 방송인들도 이따금 틀리게 쓴다. 이날 잘못 쓴 예를 보자.

가을 단풍 구경에 흠뻑 젖은 행락객들은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딸이 시험에 붙어서 처음으로 단풍구경을 왔는데 단풍이 너무 예뻐서 좋은 추억 만들게 됐습니다.”

“군데군데 햇빛이 비치는데 빨간 단풍이 너무 황홀했어요.”

이 두 인터뷰이가 쓴 ‘너무’라는 부사는 각각 ‘정말’이나 ‘무척’으로 바뀌 써야 한다. 방송사는 ‘정말’로 고쳐 자막을 내보냈다.

다음 인터뷰는 한술 더 뜨고 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단풍도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서 아이들처럼 너무 잘 왔다는 기분이 드네요.”

위 인터뷰의 첫 번째 너무는 정말로 진짜, 무척으로 바뀌야 하고 둘째, 셋째 너무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방송사는 첫째 너무는 정말로 바꾸고 둘째는 생략한 뒤 셋째는 진짜로 자막처리를 해서 올바른 우리말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말이 잘못 사용되는 예는 쓸데없이 수동형 동사를 남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보이다’는 자동사로 충분히 수동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올바르게 써야하는데도 굳이 ‘보여진다’로 쓰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야 할 현대인은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수동형언어(우리말은 본래 수동형대신 자동사를 이용해 수동형을 표현해 정확히 말하면 수동형은 영어식 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의 사용으로 수동적 사고와 소극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언어학자들의 말도 있다.

10월 14일 KBS 라디오 저녁에 진행된 “안녕하십니까. 윤덕수입니다”에 출연한 구미 불산 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1분 정도 얘기할 때마다 보통 너댓 차례 “...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특히 전문가나 교수, 평론가란 분들의 말투에서 이 부분이란 필요 없는 말을 붙여서 쓰는 예가 흔해 보통 사람이나 청소년에게까지 번져 방송이 끼친 대표적인 그릇된 우리말 쓰임새라고 여긴다.

전문 방송인이랄 수 있는 방송기자들도 미리 녹화, 제작된 리포트에서는 이 부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생방송에서는 무심히 쓰는 예가 허다할 만큼 잘못된 쓰임새이다. 하나만 덧붙이면 순수한 우리말로 아름답고 쉽게 표현되는 데도 구태어 한자어를 써서 어색하게 하는 대표적인 말 특히 방송의 악영향은 ‘저렴’이다. 아마도 홈쇼핑 쇼호스트의 영향이라고 짐작되지만 요즘은 초

9면으로 이어집니다.

“단일화” - 새정치 거리 멀다” 비판 많아

18대 대선 여야 대표 주자의 대진표가 선거일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확정되었다. ‘야권 단일화로 정권을 교체하자’는 대의명분 하에 잘 알지도 못하는 민주당 문재인과 한 배를 타고 룰의 전쟁을 벌이던 무소속 안철수는 진이 빠져 손을 들었다.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포장한 신문도 있었지만 대부분 신문들은 단일화가 민주주의다운 행태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안철수가 표방한 새정치와 한참 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후보단일화로 통합 안 될 정책 많아

문재인·안철수 양인의 단일화 검증은 단 한 차례의 미미한 텔레비전 토론으로 끝났다. 예절이 지나친 것인지, 전의를 상실한 것인지 무기력한 토론자를 보는 것은 괴로웠지만 양인은 금강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란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과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새 정치 분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대중적인 가치관을 이명박 정부와 같다고도 말할 정도이니 단일화로도 두 사람의 정치 철학과 정책의 공유 및 통합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 여론조사에서도 문의 기대와 달리 안 지지층의 50~60%만 문에게, 20여%는 박근혜에게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수의 지지층을 끌어가는 것은 ‘노무현의 아바타’ 같은 문재인의 의식과 행동이 무당과 중도층의 불만을 얼마나 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일화 이후의 양대 후보에 대해 동아일보는 11월26일 사설 ‘국민은 박·문 후보 미래비전 보고 판단하자’에서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북한 변수 등 안보환경, 국제정세, 세계경제 상황 등을 지적한 뒤 “국민은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자신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을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24일 ‘이제부터라도 대선다운 대선을’ 사설에서 “후보나 유권자나 안철수 안개 속에서 잃어버렸던 국가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평가는 엇갈려

일부 우파지 사설이 안철수 현상을 등한시하고 안개 정국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혹평한 반면 또 다른 신문들은 안철수가 불러온 정치와 경제의 개혁 움직임에 높이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24일 ‘안철수 현상 감당 못한 설익은 안철수 정치의 좌초’ 사설에서 “18대 대

선은 양자대결로 압축됐다. …안 후보의 설익은 새 정치가 기존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한 꼴이다. 정치인으로 변신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없이 대선을 불과 석달 남겨두고 출마 선언하는 것으로 대통령 꿈이 불가능했음을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라며 ‘꼴’이라는 비속어를 썼다. 대선은 박과 문, 양자대결이 아니며 이들은 유권자를 독식하지 못한다. 투표 외면 세력도 존재하고 둘이 포용하지 못하는 세력들을 대표하여 다른 마이너 후보들이 된다. 대기업의 독점을 규제 하듯이 양극화한 양대 정당이 아닌 영세 정치세력에게도 공평한 보도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이 출발선 상의 공정이다.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철수 현상은 이미 기성정치 행태를 바꾸는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정치쇄신과 혁신이 이번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한 것이 바로 이를 잘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후보 단일화 벽 끝내 못넘은 안철수 정치’란 사실에서 “그를 통해 투영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기성 정치권으로 하여금 정치개혁과 공정사회 구현

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앞을 다투도록 했다. 그러나 그런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 정치’가 고스란히 현실세계에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며 출마에 대한 애매한 태도 및 불확실성, 투표일에 촉박한 단일화로 정책 검증과 인물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 등은 문과 안의 공

다음 대선 때부터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단일화방식을 내놓기 위해 결선투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대선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심지어 지방선거까지 50%를 득표 못 하면 상위 두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식자들이 결선투표제 실시를 제안하고 있으나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천박한 생각이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는 문·안 두 사람의 주도가 아니라 정권 불복종 따위의 맹랑한 반향 투쟁이 없도록, 정치·사회적 통합을 위해 매스컴과 정당 등 국가 전체가 달려들어야 할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사안이다.

여야 합작의 ‘票폴리즘’ 범 量産

단일화 정국이 뉴스를 점령한 까닭에 후보의 가치관과 정치철학을 보여줄 정책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票폴리즘’에 중독된 여야 합작의 ‘예산 포폴리즘’이 횡행해 국무총리의 개입이 없었다면 전국의 버스가 전면 파업할 뻔했다. 택시 대중교통화, 새만금지원특별법, 부도공공주택임차인보호법 등 모두 1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선심성 법률안이 즐비했다. 문화일보는 22일 사설 ‘포폴리즘 입법 정부라도 중심 잡으라’에서 “필요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타당한 경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매스컴은 표만을 위해 돌진하는 국회의원들의 망국적인 예산낭비에 대해 이를 입법, 제안자가 물어내도록 하는 캠페인이라도 벌여 망동을 막도록 해야 한다. [4]

‘安風’교훈 되새겨 정책승부 촉구 ‘예산 포폴리즘’ 보도 뒷전에 밀려

조선일보도 24일 사설에서 “12월19일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로 판가름 나게 됐다”고 역시 ‘양자대결’을 강조하면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제3후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랜 기간 강력하게 지속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을 통해 국민이 정치권에 보낸 경고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자신들만의 정쟁으로 국민을 계속 짜증스럽게 만든다면 제2 제3의 안철수 대풍이 계속 두 정당을 덮칠 것이다”라고 ‘안 현상’을 교훈으로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26일 사설에선 “이들(안 후보에 기뻐던 계층)이 바란 것은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 안팎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 시에 타격을 받는 계층을 보듬고 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십이었다. 12월 대선은 안 후보가 남긴 부동표가 승부를 가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도 24일 ‘아름다운 단일화 못 이룬 안철수 사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안

동책임이라고 균형 있게 지적해 돋보였다. 한겨레는 24일 사설 ‘안철수의 아름다운 양보, 헛되지 않게 하라’에서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의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한편 ‘문재인·안철수 최악의 단일화’란 사설에서 “두 사람은

회우들이 펴낸 新刊

김후란 회우 시집 ‘새벽, 창을 열다’

김후란 회우(시인·전 경향신문 문화부 차장)가 그의 열한번째 시집 ‘새벽, 창을 열다’를 펴냈다. 1960년에 등단하여 1967년 첫 시집 ‘장도와 장미’를 간행한 이래 실로 45년만에 열한번째 시집을 펴냈는데 “그가 우리 시단의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신중한 행보로 작품집을 출간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작품 해설을 집필한 최동호 교수(시인·고려대 국문학과)는 밝히고 있다.

이 시집은 ‘빈의자’를 주제로 한 연작시 ‘인생’을 제 1부로 하여 제2부 ‘사랑’, 제3부 ‘소망’, 제4부 ‘추억’, 제5부 ‘생명’에 총 65편의 시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이번 열한번째 시집 ‘새



벽, 창을 열다’를 상재하면서 지난번 시집 ‘따뜻한 가족’과 은연중 맥을 같이 하는, 삶의 소중함과 인간생활의 애뜻함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내 시집을 손에 든 독자들과 보이지 않는 손을 따뜻이 잡고 싶다”고 밝혔다.

최동호 교수는 “김후란의 시 전체를 조감할 때 그는 등단 이후 50여년이 넘는 세월을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시집의 표제가 된 시 ‘새벽, 창을 열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김후란이 인식한 생명의 빛은 그의 시에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시와 시학 刊·10,000원)

8면에서 이어집니다.

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도 ‘짜다’는 쉽고 확실한 우리말은 아예 모르고 저렴하다고 말해 움찔움찔 놀라게 만든다. 한글전용과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방송의 악영향일 뿐이다. 대표적으로 잘못 쓰이는 우리말의 용례를 몇 개 짚었지만 방송에서 잘 못 쓰이는 우리말의 예는 수 없이 많아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되고 시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기자나 제작자들은 반드시 인터뷰이나 출연자의 그릇된 우리말 사용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두 번, 세 번 녹취를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유도하고 방송을 통한 우리말 가꾸기와 교육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어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유도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방송이 오히려 우리말에 흠집을 낸다는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

“내 인생은 사회부 기자 … 과거 - 역사

영어·일본어에 능통

傘壽가 넘은 여든 네 살의 유승택 원로회우는 건강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건강 좋으시죠?” 라는 인사말에 “그래요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워킹이 최고예요. 워킹이…” 라면서 워킹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유창한 영어 발음이 범상치 않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공부에 소질이 많았다는 유 회우는 영어도 잘했고 일본어에도 능통해 한 때 일본어 번역 일을 하기도 했다.

자택이 있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마을은 공기 좋고 조용하고 나들이에도 불편함이 없다. 일상 중 가장 중요한 일이 걷기다. 몇 해 전에 위장에 문제가 생겨 고생을 좀 했는데 걷기 운동을 한 후에 말끔해 졌다.

요즘은 걷기를 거르는 일이 거의 없다. 유 회우의 ‘걷기 예찬’은 진심을 담고 있었고 계속됐다.

-요즘 세상 어떻게 보이세요?

“일제 식민지시기에 태어났고 해방과 6·25를 겪었습니다. 기자로 4·19와 5·16 그리고 유신의 격랑을 헤쳐 왔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살아왔지요. 그리고 요즘 갈등의 세태를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현대사의 한 증인으로 볼 때 과거와 역사를 경시하는 현 세태가 딱합니다. 의협심도 없고 월급쟁이로 자리매김한 것 같고 선배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 요즘 기자들의 모습도 못마땅해요.”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은 유 회우의 표정이 비장했다.

“사실 요즘 세월 많이 좋아졌어요. 1950년대 자유당 독재가 절정을 이룰 무렵이었지요. 자유신문 사회부 신출내기 기자였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을지로 입구를 지나는데 ‘저놈 잡아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카키복에 파나마모자를 눌러쓴 당당한 체구의 사나이가 지휘봉으로 야당 시위대 가운데 한 남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곧 바로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관들이 건장한 청년들을 밀치고 한 사람을 번쩍 들어 지프차에 내동댕이치는 것이 보였지요.

카키복의 남자는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치안국장 김종원이었고 지프차에 처박힌 남자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조병옥 박사였습니다.

치안국장 김종원은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기도 했었지요. 요즘 이명박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말도 안 되지요. 요즘 야당 정치인들은 너무 편안하게 온실 속 정치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교동 술집서 울분달래

-기자였는데 정의감도 없이 구경만 하셨나요.

“어쩔 수 없었죠. 보사부 출입 기자였는데… 거의 매일 반복되다 시피 하는 영구집권 규탄 시위와 강제 진압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었고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교동으로 가서 술로 울분을 달래는 거였죠. 그러면서 비판의식과 기자정신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김종원 치안국장 관련 이야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3〉

회우초대석

柳承

인터뷰

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지요. 당시 국무총리가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 많다’ 고하자 옆에 배석했던 치안국장이 ‘인플레 그 놈이 누구인지 지적만 해주시면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마도 유비통신이거나 정치 개그였겠지만 오늘 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기자 생활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은?

“저의 기자 생활이라면 사회부 기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부 기자가 바로 제 인생이죠.

독재 현장을 지켜보면서 기자 정신을 키운 것도 그 중의 하나일 테구요. 4·19 후에 3·15부정선거법 재판을 취재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월남전 취재, 대한항공 미주 첫 취항을 시승 취



자택 서재에서 사회부기자로 보낸 인생을 회고하는 유승택회우.

독재현장 지켜보며 기자정신 키워 … 술한 취재 신아일보 시절이 절정기 … “요즘은 워킹으로

재했던 일,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과 관련해서 오사카로 출장 갔던 일 그리고 서술이 퍼렇던 박정희 정권의 실세 장관 집 보석 얘기 등이 생각나는 군요.”

-장관집의 보석 이야기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신아일보 사회부장 때인데요. 범조 출신의 베테랑인 고 윤종보 기자가 특종이라면서 넘기는 기사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둑을 잡았는데 엄청난 보석을 훔쳤고 조사해보니 그 출처가 당시 정권 실세인 이모 장관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서는 이런 기사를 내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신아일보 가관 톱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지요.

속보경쟁하다 오보 곤욕

윤종보 기자가 귀뜸을 했어요. 검찰의 반응이 심상치 않고 부장과 취재기자인 자기는 구속될 것 같다고요. 박정희 대통령까지 노발대발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구속을 각오했으나 무사했고 해당 장관은 바뀌었지요.”

- 취재 뒷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요?

“1960년대 보사부 출입기자 일 때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국립보건원에 들렀는데 간부들이 일은 하지 않고 골프채만 휘두르고 있더군요. 알아봤더니 새로 취임한 보건원장이 취임사에서 ‘골프는 좋은 운동이니 골프를 열심히 하라’고 권장했다는 거예요. 신문 사설에 골프 망국론이 등장할 만큼 골프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신아일보 사회면에 보도된 ‘취임 일성 골프를 쳐라’는 제목의 박스 기사가 눈길을 끌었지요.

잊을 수 없는 일로는 ‘광부 양창선씨 구출’ 기사입니다. 충남 청양에 있는 광산에서 매몰된 양창선씨 구출작전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백동주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양창선씨 구출은 확실하며 시간만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출시간이 임박했다? 오전인가? 한 시간 뒤인가? 편집국은 흡사 전쟁터 같았습니다. 사회부장인 내가 결단을 내렸지요. 가관 시간에 맞춰 ‘양창선 구출’



대한항공 미주 첫 취항을 취재하러 떠나는 유회우.

경시 세태 딱해요”

承澤

- 전 자유신문 대한일보 기자
- 전 신아일보 사회부장 편집국장
- 전 약업신문 사장

글 · 사진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구출 광부 제일성, 고맙소. 고맙소’로 달았지요.

그런데 가판이 나온 정오가 지났는데도 양창선씨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구출되지 않았어요. 신아일보 편집국은 침울한 허탈감에 빠졌고 사회부장 유승택은 몸 둘 곳이 없었답니다.

양창선씨는 상당한 시간 이 지나서야 구출되었습니다. 기자 생활 중 가장 참담했고 등에 진 땀이 나는 오보 사건이 었습니다.”

-고향이 충남 논산이시지요.

“논산이 고향이긴 해도 대전에서 자랐고 공부도 대전서 했지요. 대전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구요. 대학은 전기에 떨어져서 후기로 성균관대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6·25

왜 의병제대하느냐고 의아해 하던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휴전이 됐고 대전에 있던 전신연합대학에 복학을 했어요. 다시 대학생이 된 거죠.”

학비 벌려 신문사 아르바이트

-기자가 된 거는요?

“다시 대학생이 되기는 했지만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당시 상황이 모두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대전일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신문기자라는 평생 기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일보 기자로 일하다가 자유신문의 安準 편집국장을 알게 된 인연으로 서울로 올라와 기자생활을 계속 하게 되었죠.

중앙언론계 생활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의욕도 솟았고 기대도 넘쳤어요. 좋은 선배기자들을 만난 것도 큰 소득이었지요. 자유신문의 이봉구 문화부장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소설가이며 ‘명동백작’이란 애칭을 지닌 이 부장은 술을 좋아해서 데스크를 보다가도 술기운이 떨어지면 근처 광고나 명동의 선술집으로 달려가서 술을 마셨어요. 안주는 새우젓이면 OK였구요. 탤런트 최불암씨의 어머니가 하던 ‘은성’은 이부장의 단골집이었습니다. 이 부장은 나름대로의 술 철학을 남겼는데 첫째는 술 마시면서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는 것과 둘째로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일보와 신아일보에서도 일하셨지요.

“그 때는 신문사를 옮기는 것이 거의 일상화 되다시피 했어요.

자유신문에서 대한일보로 옮겨 일하다가 폐결핵이 걸려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고비를 잘 넘겼구요. 1960년대 중반에 새로 생긴 신아일보로 옮겨 사회부 차장과 부장 그리고 편집국장을 지냈어요. 이때가 내 인생의 절정기였어요. 1965년 5월6일 창간된 신아일보는 그 시대 최초의 컬러 지면에다 가판을 발행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제공했지요. 군사혁명 후 창간된 신아일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권력과 견주었으나 정권의 미운털을 산 나머지 1980년 종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참신하고 격조 높게 수놓은 한 신문의 종언은 이 나라 언론사의 지울 수 없는 슬픔이자 손실이었으며 나의 인생인 기자생활도 강제로 마감을 하게 했습니다.”

“건강관리가 제일 큰일”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신아일보가 문 닫은 후에 약업신문 사장 등을 지내기도 했지만 스쳐간 인생이었어요. 요즘은 건강관리가 제 일 큰일이지요. 워킹을 즐기고 매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5인회와 9인회 등 언론계 출신 지인들과 갖는 친목 모임에서도 같은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키운 나라입니까? 앞으로 잘되어야지요. 그리고 잘 될 거구요.”

건강의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는 유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⑩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자

건강을 보장해준다는 이른바 건강기능식품 광고전이 뜨겁다.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회춘마저 가능한 것처럼 선전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지 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



이광영

- 본회 노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식품이란 이름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과대 포장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건강에 자신이 없는 고령자들을 상대로 솔깃한 선전문구와 감언이설로 유인, 재미를 보고 있다.

인류는 지난 수십만 년간 식물에 의존하여 살아왔다. 식물이 만들어 낸 산소와 식물이 만들어 낸 당질,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물질들을 포함하는 식물성화학물질(phytochemicals)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해왔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모든 필요성분이 식물 속에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식물의 종류가 너무 많은 데다 성분 또한 무척 다양해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곡물, 과일, 채소류 중 한 두 가지를 선택하여 각 식물들이 생산한 고유의 물질들을 조사하여 성분을 연구하게 된다. 학자들은 식물에 포함된 극미량의 어떤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 그 성분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고도로 농축하여 동물실험을 하게 된다.

학자들은 자신이 연구대상으로 한 식물에서 어떤 기능을 갖는 성분을 찾아내면 이를 발표한다. 이들의 발표는 찾아낸 성분이 다른 곡물이나 과일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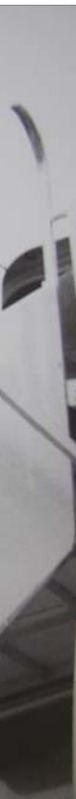
채소보다 월등하게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뉴스에 부각된다.

뉴스는 농축한 성분을 동물에게 주어 실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동물실험 결과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에 사용한 농축된 성분은 천연 상태의 식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수박에 들어 있다는 비아그라와 비슷한 성분이 효과를 보려면 한자리에 서 일곱 통 정도는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농축하여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것은 아예 이들 성분을 인공합성한다. 종합비타민을 포함한 각종 비타민류와 글루코사민, 키토산, 오메가3 지방산, 스쿠알렌 등이 이에 속한다.

결론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식사를 고르게 하면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결과이다. 고령자도 같다. 식보(食補)가 최고의 보약(補藥)이다. [본문]

재 비화 남겨 건강 다져요”



가 터졌어요. 대학 생활의 꿈을 키우던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죠. 서울이 공산당 세상이 돼 버리자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9·28 수복이후 북진하는 국군과 유엔군이 경의선과 경원선을 지켜내기 위해 철도경찰 특공대를 공모했어요. 지원해서 합격했구요. 용산경찰서에서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4후퇴 때는 인천에서 LST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후퇴했고 경부선 근처에 배치돼 철도 보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답답한 일상을 보내던 중 공군헌병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철도경찰에 사표를 냈습니다. 10대1이 넘는 경쟁이었는데 합격했고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새벽부터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항공기지사령부로 배속되었으나 왼쪽 팔뚝 이상으로 의병제대했습니다. 힘들게 훈련은 했지만 제대로 된 전투 경험도 없는 군생활의 마감이었습니다. 제대 명령을 받고 군복을 반납하는데 기간병이 남들은 못 들어와 난리인데

회우는 잘 견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건강의 3대 비결이라고 한다. 술도 끊었는데 아직도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를 피운다니 의아스럽기는 하다. 지금도 사회부기자인 유 회우의 소신이자 고집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유 회우님, 담배는 끊으시지요. 회우님과 사모님 김지화 여사. 그리고 후손과 그 가정의 건강과 평온을 빕니다. [본문]

▶ PR - 화제의 책 ◀ ‘감사합니다 한국’

최근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이 펴낸 ‘감사합니다 한국’이 화제다.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은 이 책에서 ‘한국은 일본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며, 따라서 양국의 우호와 연대는 양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문화라는 보배 같은 한국의 대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한일의 영원한 우호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벗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시각에서 한일 양국 국민이 감정을 자제하고 그야말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심정으로 이해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한일관계가 전례없이 뼈격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좀더 거시적

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이케다 다이사쿠 회장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은 “한일 양 국민, 특히 지도자들은 이케다 SGI 회장의 이 같은 역사인식을 밑거름 삼아 서로 감정싸움만 하지 말고 대국적으로 ‘귀를 연 대화’를 통해 손을 맞잡고 새로운 역사의 아침을 열도록 노력해 동방에서 제2의 르네상스를 기약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한 지식인이 펴낸 ‘감사합니다 한국’은 한 일 양국 국민 누구나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조선뉴스 프레스 출판 216쪽·값 12,000원·전화 724-6847)

TV 짜증나는 꼴불견 너무 많다

TV를 보면서 짜증 날 때가 많다.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결여, 자막 영상에서 나타나는 무성의,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제작 자세, 서로 흉내 내기에 바쁜 드라마들, 시청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화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우리 사회와 우리들 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사자들은 아직도 막강한 힘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과 불만 중의 하나가 선명하지 못한 자막이다. 외국 영화나 假聲을 사용해야할 경우 화면 아래에 자막이 나온다. 듣기가 어려우니까 읽게 할 필요가 있어 자막을 넣었을 터에 그 것을 읽을 수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자막을 넣는지 알 수가 없어진다. 배경이 흰색에 가까울 경우 흰 자막 글씨는 전혀 읽을 수가 없다. 외국의 경우 배경의 색깔보다 훨씬 더 희게 글씨를 부각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자 자체에 검은 테를 넣어 시청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한국 방송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 자막을 방영하는 시간도 말이 안 되게 짧다. 읽는 속도가 비교적 느린 고령자들뿐만 아니라 웬만큼 속독에 익숙해 있는 젊은이들조차 반도 채 읽기 전에 자막이 스쳐가고 만다고 한다. 시청자가 읽지 못할 만큼 빨리 스쳐가는 자막이라면 왜 방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시청자들이 한 두 번 좁은 꺾어 봤으리라고 짐작이 가지만 본방송 도중 선전 광고로 화면을 바꿀 때 갑자기 음량이 커져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있다. 광고주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광고의 소리를 높인다고 광고 효과가 더해지는 것이 아닐 진데 무엇 때문에 무리하게 음량을 올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광고뿐만 아니라 때로는 배경 음악을 내보내면서도 갑자기 볼륨을 올려서 시청자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성 자체도 문제이다. 말하는 사람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가성을 사용할 경우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가성으로 내보내는 기술이 크게 미숙하고 어색하다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을뿐더러 듣기에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가성을 만들되 듣는 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음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줄로 안다. 가성을 방영할 경우 자막을 함께 내기가 일쑤인데 가성의 내용이 분명해지면 자막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신원이 밝혀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까지 가성으로 내보내는 일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것 중 하나에 사어나인자 찜질방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목욕 후이나 입을 가운을 입고 출연하는 토크 쇼가 있다. 시청자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한두 번 시도하는 것

은 있을 수 있겠으나 매번 파자마 비슷한 옷차림으로 프로를 진행하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줄로 안다. 출연자들은 그런 스타일이 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보는 이에게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닌게 분명하다. 모양새가 나쁘다기보다 솔직히 말해서 꼴불견이다. 자기 집을 방문해 온 손님(시청자)을 파자마 같은 것을 입고 대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



이 형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대리
·(주) 한려개발회장

질 같은 싸움질을 하고 때로는 죽이고 고문하는 폭력이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리라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만하다. 각급 학교에서의 왕따와 약자 괴롭히기, 폭행사건 등이 매일 매일 접하는 텔레비전의 폭력 영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방송사들의 드라마 방영은 그 편수에 있어 세계에서 몇째 안에 든다고 듣고 있다. 외국에까지 수출되는 좋은 드라마도 많지만 요즘 보는 드라마에서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대 없이는 못살아' '적도의 남자' '사랑아, 사랑아...' '다섯 손가락' '천사의 선택' '그래도 당신' 이 외에도 여러 개의 드라마가 모두 딸이나 아들을 자신이 알게 모르게 버렸거나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찾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토리의 전개도 엇비슷하다. 이 같은 드라마의 집필 경향과 흉내 내기하는 버릇은 가능한 한 지양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한다.

또 하나 크게 못마땅한 것이 있다. 대체로 많은 방송 프로가 젊은이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들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터다. 시청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할지는 모르나 그 도가 좀 지나치다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는 불만이다. 사실 극히 제한적으로 할애된 시간을 빼고는 우리나라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방송에 어느 방송사 할 것 없이 지극히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음악 프로도 그렇고 토크 쇼도 그러하다. 음악 프로에서 젊은 층도 즐기는 대중음악은 그런대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클래식 듣기란 가뭄에 콩 나듯 한 것이 실정이다.

연예인이 판을 치는 프로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이 채널을 틀어도 연예인 프로, 저 채널을 틀어도 연예인 프로가 나오기 일쑤이다. 지루하고 수도 없이 되풀이 되는 광고 선전이 지겨워서 꺼버리듯이 연예인들만 계속 나오는 방송이 지겨워서 TV를 꺼버리는 고령자들이 적지 않다고 들린다. 텔레비전이 마치 연예인들의 전용물인양 변해버렸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 '1박2일' '황금마차' 등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연예인들의 사생활 소개, 연예인들의 신상 백서 같은 프로가 지나치게 많다. '연예 in TV' '스타 뉴스' '스타 부부 쇼' '연예인 소식' '연예인 X 파일' '우리 결혼했어요' 'xx의 승승장구' '런닝맨' 'xx와 100인의 여자' '무한도전' '해피 투게더' '화성인 비이러스' '해피 선데이' ...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이 프로들의 대부분이 연예인 사회자가 또래 연예인들을 불러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다. 잡담을 주고받더라도 내용에 맛과 멋이 있고 뜻이 있고 재미도 있는 내용을 소개한다면 모르되 대체로 내용이 없는 대화에 서로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토크 쇼 자체가 무의미하고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비치기까지 한다. 내용의 질도 질이지만 개그 중에는 듣는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는 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심심찮게 선보인다.

전보다는 약간 나아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요즘도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생방송에서 함부로 내뱉는 출연자들이 많다. TV가 연예인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방송사 자체가 분명히 방침을 밝혀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방송사들의 심도 있는 배려가 바람직하다. [국문]

호린자막 빨리지나가 알아듣기 힘든 假聲 찜질방 목욕가운 출연 살인-폭력장면 마구방영

다고 하겠는가. 가운을 입은 젊은 남녀가 저희들끼리 말을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는데 그 것이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시청자를 경시하거나 우롱하는 무례를 저지르는 태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TV 드라마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청자들에게 안방극장이나 다름이 없는 터인데 그런 안방극장에서 거의 어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폭력과 살인 사건들이 여과 없이 방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잔혹한 폭행, 잔인한 살인, 강패조직에 의한 납치와 칼부림까지 등장하는 폭력사태 등 치고받고 칼질 총

비슷비슷한 드라마 클래식외면 음악프로 연예인 토크쇼 지나쳐 듣기 거북한말 남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달갑지 않은 경향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굳이 표절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많은 드라마가 쉽게 쉽게 남의 것을 모방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보기에 민망하기조차하다.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혼전정사나 불륜 등은 이미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되어있지만 요즘에는 혼전정사나 불륜으로 가졌던 아이를 뒤늦게 찾는다든가 줄거리가 여러 드라마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스토리 전개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그같은 흔하지도 않고 특수하기만 한 케이스를 너무나도 쉽게

송년산행 용마산 갑니다

본회 산악회 12월 26일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정운종)는 아래와 같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산행을 용마산에서 갖습니다. 삼국시대의 전략요충지로서 곳곳에 역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용마산 산행에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 산 행 지 : 용마산(龍馬山·348m·서울 중랑구-광진구)
- 산행일시 : 2012년 12월 26일(수요일) 오전 10시
- 집합장소 : 용마산역 2번 출구(전철 7호선)
- 회 비 : 10,000원
- 준 비 물 : 식수, 동계등산장비
- 연락문의 : 010-7276-6211(정운종) 010-3855-8624(이상호) 010-8461-5349(강진형) 010-2691-0084(나용경)

*산행 후 아차산역 앞 용두삼겹살쭈꾸미식당(아차산역 1번 출구·☎ 02-457-7710)에서 뒤풀이 모임이 있습니다. 산행이 여의치 않은 회우는 뒤풀이 장소로 낮 12시 3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종군기자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 이혜복 고문 평전 봉정식 성황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素露 이혜복 본회 고문의 일대기를 집대성한 ‘종군기자 · 사회부장 빛나던 이름 이혜복’을 출판하고 봉정식을 겸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평소 소로선생과 교분이 두터웠던 많은 화우들이 참석한 이날 홍원기 회장은 이혜복 선생에게 봉정패를 증정하고 “평생을 언론에 몸담아 오신 소로선생의 행적은 선생의 생생한 자취이자 우리 언론사에 또 하나의 귀중한 증언으로 남을 것”이라는 요지의 인사말을 했다. 이혜복 선생은 1946년 민주일보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투신한 이래 경향신문을 거쳐 민국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사회부장, KBS 해설주간 등을 역임했



다. 5대에 걸친 대한언론인회 회장 재임 중에는 10억 기금 조성 등 본회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



홍원기 대한 언론인회 회장이 이혜복 고문에게 평전을 봉정하고 있다.

였다. 특히 6·25 한국전쟁 중에는 경향신문 기자로 국군 1사단의 평양탈환기사를 특종보도 하는 등 종군기자로서 크게 활약한바 있다. 봉정패에는 이 같은 내용과 국군의 평양탈환 당시 이혜복 고문이 보도한 경향신문 1면 사진이 실렸다.

노영서 전 육군 정훈감(6·25 당시 이혜복 고문과 함께 정훈장교 소위로 평양 입성), 윤양중 일민문화재단 이사장, 신우식 본회 고문, 강승훈 서울언론인클럽 회장이 축사를, 제재형 고문은 이혜복 선생에게 휘호 ‘조고일도(操觚一途)’를 증정했다. [4]

이성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연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이사장의 연임을 통보했다. 연임기간은 2012년 12월24일부터 2013년 12월 23일까지 1년이다. 문화부는 이 이사장의 연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성준 이사장.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한 점 등을 크게 평가 했다.

이 이사장은 16일 임원 회의에서 “연임이라는 영광은 통합재단에서 지난 3년간 펼쳐온 개혁과 혁신의 과업들을 마무리 짓고 재단을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使命感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재단이 안고 있는 뼈아픈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면서 “정치적 대전환기에 재단이나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거지는 추호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공유만 할 수 있다면 현존의 가치를 뛰어넘는 미래가치는 얼마든지 창출해 낼 수 있다”면서 “연임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주어진 하루하루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준 이사장은 지난 10월 2012년도(제21회) 대한언론상(특별공로상)도 수상한바 있다. [4]

특히 2012년 실시한 2011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는 ‘기관장 A 등급 -기관 B등급’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장 중 최상위 등급이며 문화부산하에서 기관장이 최상위 평가를 받기는 처음이다. 지난 경영평가에서 평가단은 이질적인 3개 통합기관을 조기 융합하고, 상이한 임금체계를 단일화하고, 편차 심한 급여를 균형화 시키면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한 이 이사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평가단은 유통사업의 방향을 대전환 시키는 등 국고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면서 국고의

언론가 소식

KBS 김환영사장 취임



KBS 한국방송 김환영사장이 11월 23일 공식 취임했다. 김사장은 1981년 KBS공채 8기로 입사후 파리 주재 PD 특파원과 대전 방송국국장, TV제작본부장과 콘텐츠 본부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8월 KBS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관훈클럽

12월 20일 정기총회

관훈클럽(총무 김민배)은 지난 10월 24일자로 관훈클럽 회보 관훈통신 제 143호를 발간했다. 관훈클럽은 또 오는 12월 20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현역회원 친선의 밤

11월 27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현역 회원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현역 회원들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김민배 관훈클럽 총무와 문창극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이사장의 인사말, 만찬, 공연,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외국언론인 연수 프로그램

2012년 10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개월 과정의 외국 언론인 연수(KPF-Kwanhun Press Fellowshi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초청 대상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보답 차원에서 한국전쟁 참전국과 지원국 중에서 10개국을 선정하고 각국에서 1명씩 초청하기로 했다.

방일영문화재단 방일영 국악상 시상

방일영문화재단(이사장 조연홍)은 11월 26일 오후 5시 광화문 코리야나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2012년도 방일영 국악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春田 성우향선생.

건강포럼 내년 3월에 개강

“피가 맑아야 건강합니다. 탁한 피를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건강한 피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를 만들려면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토요건강포럼’에서 강사로 나온 임춘희 자연건강연구소 소장이 ‘혈액 8%의 비밀’에서 건강한 피를 이렇게 강조했다. 임소장이 전하는 맑고 건강한 피를 가질 수 있는 식이요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식이요법

피를 탁하게 만드는게 음식이지만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특효가 있다. 혈

액을 맑게 하는 음식은 간, 감귤류, 견과류, 곡류, 청국장, 현미보리 등이다. 콜레스테롤·지방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인다. 특히 삼겹살, 차돌박이 등 지방을 많이 함유한 고기 부위의 섭취는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하는데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지방 흡수를 방해해 바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몸속으로 흡수되는 지방의 양을 적게 해줘 혈액을 맑게 해준다.

▲생활요법

혈액이 잘 돌고, 노폐물이 잘 배출되면 혈액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임춘희 소장.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하루 한 번 20분 정도 반신욕을 한다. 깊은 잠을 자도록 한다. 잠을 푹 자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천연의 치료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스트레스는 혈중의 포도당이나 콜레스테

롤, 지방산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혈소판을 침착시켜 동맥경화가 일어나기 쉽게 하고 혈전 형성을 촉진시킨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담배연기가 내뿜는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한다.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가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의 배출 또한 원활하지 않아 깨끗한 혈액의 적이 된다. 이날 건강포럼에 나온 회원들은 특히 운동요법에 큰 관심을 보여 임춘희 강사가 시연하는 여러 가지 동작을 따라하며 즐거워 했다.

한편 토요건강포럼은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휴강하며 내년 3월에 개강한다. [4]

(건강포럼 이보길 간사)

溫故知新

12명의 충무공(忠武公)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에 아홉 사람이었다.

가장 먼저 충무공 시호를 받은 사람은 고려의 개국공신이며 강릉 최씨 시조인 최필달(崔必達)이다. 그 다음은 평장사를 지낸 박병묵(朴炳默)이고, 또 한 사람은 공민왕 때의 명장 지용수(池龍壽) 장군이다. 조선조로 들어서 가장 먼저 충무공 시호를 받은 사람은 조영무(趙英茂)이다. 그는 태종 이방원(李芳遠)의 심복 부하로 고려 말 개성 선죽교에서 충신 정몽주(鄭夢周)를 암살한 인물인데 조선이 건국되자 개국공신에 봉해졌다.

두 번째 충무공 호를 받은 사람은 이준(李浚)이다. 그는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臨瀛大君)의 둘째 아들로, 세조 때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고 예종 초에는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리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여 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세 번째 충무공은 '소년 장수'로 유명한 바로 남이 장군이다. 남이는 세조 때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이준과 함께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적개공신 1등에 올랐다. 여진 정벌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불과 27세에 병조판서가 되었다가 간신 유자광(柳子光)의 참소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남이와 그의 옥사를 다스린 이준의 시호가 같은 충무공이었으니 참으로 공교롭다.

네 번째 충무공이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긴 말을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 충무공은 이순신과 같이 임진왜란 때 순국한 김시민(金時敏)이다. 그는 진주목사로서 임진년(1592년) 10월 5일 겨우 3,800명의 민군을 거느리고 7일간의 격전 끝에 2만여 왜군을 물리쳤다. 이것이 한산대첩, 행주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

대첩이다.

여섯 번째 충무공 이수일(李守一)은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웠고, 1602년 병마사로 여진족을 소탕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로 출정하여 반군을 대파했다. 뒷날 형조판서를 지냈다.

일곱 번째 충무공 정충신(鄭忠信)도 임진왜란 때 어린 나이로 공을 세웠고,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때 공을 세웠다. 그는 무술에 뛰어났으며 천문·지리·의학·복술 등에도 밝았다.

여덟 번째 충무공 구인후(具仁厚)는 인조의 외사촌 형이다. 인조반정에 참여했고, 나중에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냈으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공을 세웠다.

아홉 번째 충무공 김응하(金應河)는 광해군 때 총사령관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후금정벌에 나섰다가 아깝게 전사한 장군이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 제갈량(諸葛亮)과 송나라의 명장 악비(岳飛)의 시호도 충무공이다. 이들까지 더하면 충무란 공신 호를 받은 인물은 모두 열네 명이나 되는 셈이다.

이처럼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충무공을 이순신을 일컫는 대명사처럼 써서는 안 된다. 충무공이란 공신 호를 사용할 때에는 '충무공 이순신'이나 '충무공 김시민'처럼 반드시 그 뒤에 본명을 붙여야 옳다. [4]

15세기 '族圖' 동성동본 혼인 당시엔 일반적인 사례였다



김양섭

·본회 회우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한국씨족문화연구소소장

당했다. 그러므로 왕후 가족의 계보를 소상히 파악해 뒤야했을 것이다.

특히 내외족(内外族)의 가족관계를 파악하려면 혼인가록은 필수이다. 족보도 부인이 누구의 후손이며 모의 딸임을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동성혼(同姓婚)은 물론이고 근친혼(近親婚)까지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기록에 동성혼은 물론 동성동본(同姓同本) 결혼 사례가 7건이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역대 혼인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조 초기까지 동성동본 혼은 물론이고 근친혼까지 널리 이뤄지고 있었다. 신라왕실은 부계(父系) 혈족혼이 13건, 고려때는 51명의 왕비중 13명이 왕의 딸(公主)이었다. 광종(光宗)은 아버지인 태조(太祖)의 딸, 덕종(德宗)은 아버지 현종(顯宗)의 딸, 즉 남매간에 혼인해 왕비가 됐다. 이렇듯 동성혼이나 족내혼(族內婚)은 고려때 매우 성행했다. 이에따른 폐단이 크자 충선왕(忠宣王)때 이르러 먼저 왕실의 동성혼을 금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풍습은 그뒤에도 양반계급은 물론 일반서민층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儒敎)의 사

상이 들어오면서 불취동성(不娶同姓)의 관습이 자리잡으면서 철칙화(鐵則化)됐다. 이로 인해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남여가 일곱 살이 넘으면 자리를 함께 하지않음)이란 원칙까지 내세워 유가(儒家)의 가문을 중심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공자학(孔子學)은 삼국시대부터 유입됐고 고려때 안향(安珦)이 주자전서(朱子全書)를 들여와 널리 보급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유교(儒敎)는 역사와 학문적 고찰에 그쳤다. 그러다 실천적 변환은 조선조 초기 김종직(金宗直)으로부터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로 이어 지면서 거듭된 사회를 거쳤으나 성리학(性理學)이 뿌리를 내렸다. 이에따라 동성동본불혼원칙(同姓同本不婚原則)이 널리 과급됐고 더구나 근친혼은 물론 내혼제(內婚制)가 사라지고 부계혈통(父系血統)의 혼인을 피했다. 얼마전까지도 민법815조가 이를 법으로 엄격히 규제했으나 2008년 민법 및 가족법 개정으로 동성동본불혼은 모두 풀렸다.

다음으로 외사촌과의 혼인관계다. 외손녀와 친손자의 관계는 이성(異姓)으

로 봤으니 더구나 의아해할 일이 아니다. 자매가 한집안에 머느리 손자며느리 사이가 되는 것을 겹사돈간이라 하며 최근까지도 있는 일이다. 이를두고 딸을 결혼시키면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했다. 결혼을 하면 남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또 가계도인 가첩 가승은 부계혈통(父系血統)의 기록으로 대외적인 족보(族譜)와는 다르다. 하나의 호적부와 같은 성격으로 결혼을 비롯해 대외적인 문서교환에는 아들 딸 관계없이 생년월일 간지(干支)까지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집안에 소장하는 가족기록에는 출생순의 나열이 당연하다. 그리고 외손자의 수록은 뛰어난 특정인물에 한하지만 족보에도 등재해 왔다. 특히 왕실의 내외 친족의 관리를 맡은 종부시에서 제작 했다면 당연한 순차와 입록(入錄)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적서(嫡庶)의 구분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였다. 이에따라 조선조 초기까지만 해도 적자서자의 차별없이 현직(顯職)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1415년(태종15) 서선(徐選)등의 진언에 의해 서자는 과거정반(科擧正班=文科)을 불허하면서 서얼금고(庶孽禁錮) 제도가 시행됐고 규제가 시작됐다. 현덕왕후(1418~1441)는 안동권씨 권전(權專)의 딸로 1437년 세자빈(世子嬪)에 책봉됐으나 4년만에 죽었다. 1450년 문종(文宗)이 왕위에 오르자 아내를 현덕왕후로 추책(追冊) 했으니 생전에 왕후로 있지는 않았으며 단종(端宗)의 생모이다. 이로보면 족도는 1450년전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가 1392년에 개국했으므로 불과 50년 사이이며 혼인관계와 적·서의 명확한 기록은 관리상 필요했을 것이다. [4]

우리나라 결혼풍속은 신라 고려 조선조 개국초기까지 동성혼(同姓婚)이 널리 퍼져 있었다. 왕실은 물론이고 사대 부가문(士大夫家門)을 비롯해 서민에 이르기까지 서스름 없이 근친혼(近親婚=8촌이내)이 행해 졌다. 그런데 고려의 숭불정책(崇佛政策)에서 조선조개국과 함께 억불숭유(抑佛崇儒)로 바뀌면서 윤리(倫理)의식의 강화로 동성동본혼(同姓同本婚)이 사라지게 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최근 단종(端宗)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친정 안동권씨(安東權氏)의 가계(家系)를 밝힌 15세기 족도(族圖)를 공개 했다. 이 족도의 기록에 근친혼등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밝혀져 관심을 끄는듯 하다. 하지만 민속자료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적 연구자료의 내용은 아닌듯 하다. 이 족도는 왕실이나 종부시(宗簿寺)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런류의 기록은 일반에게도 널리 쓰여졌다.

명문(名門)집안이 아니더라도 과거(科擧)에 응시하려면 내외4고조(친가고조, 외가고조, 처가 내외고조)를 기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려중엽부터 출세를 하려면 조상을 기록한 가첩(家牒)을 도표식으로 만들어 보관해야 했다. 이를 가승(家乘) 가계도(家系圖=表) 보첩(譜牒)등이라 한다.

그런데 객관적인 표현으로 족도라 한 것을 보면 왕실에서 외가의 혈통을 밝혀놓기 위해서인것 같다. 종부시는 고려때 왕실의 보첩(璿源譜)을 맡은 전중성(殿中省)으로 시작해 여러차례 이름은 바뀌지만 왕실의 기구로 조선조에는 종실(宗室)의 잘못을 조사하는, 요즘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같은 역할까지 담

VISION 2020
PARTNER FOR NEW POSSIBILITIES

고객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나아가 세상이 더 크고 새로운 가능성을 품을 수 있도록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SK텔레콤 구성원 한명 한명의 의지와 신념을 담아낸 새로운 비전입니다

가능성의 릴레이

바다 속 세상이 궁금한 아이에게
깊은 바다 속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 신기한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술은 아직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물고기 정보

전자리상어

전자리상어는 상어목에 속하는 조기어류의 일종이다. 몸길이가 1.5m 정도이며, 몸빛깔은 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할 수 있다. 주로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먹이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등이다.

물고기 정보 FISH INFORMATION



가시복

- 학명: 가시복 / 목: 조기어류 / 과: 가시복과
- 서식장소: 연안
- 몸의 특징: 몸속-외골격, 배쪽-항문, 검은색 반점
- 분포지역: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온대 및 열대해역

서식지

주요서식지



물고기 정보

플랩노즈레이

플랩노즈레이는 연골어류에 속하는 조기어류의 일종이다. 몸길이가 1.5m 정도이며, 몸빛깔은 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할 수 있다. 주로 깊은 바다에 서식하며, 먹이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등이다.

사람에서 기술로 다시 사람으로

SK telecom

www.sktcampaign.com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만나보세요

마야 · 잉카문명의 요람 역사 기행

지난 10월15일부터 2주일간 다녀온 중남미 여행은 주마간산이었지만 수십 세기동안 원시림속에서 명맥을 이어온 마야·잉카 문명의 유적을 돌아보는 역사기행이었다.

중남미의 역사는 기원전 수세기부터 정착한 멕시코 중심의 마야족과 남미대륙 안데스 산맥을 따라 자리잡은 잉카족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서유럽의 작은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멕시코와 남미대륙을 정복하면서 마야·잉카제국은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시림과 고산지대로 도피하여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마야·잉카제국은 한때 2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1백만도 안되는 소수의 원주민으로 남아 있다. 남미대륙이야 말로 세계 어느 곳보다 피정복자의 아픔과 그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곳 인지도 모른다.

‘악마의 목구멍’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는 남미대륙 중앙에서 남태평양으로 흐르는 이과수강의 중간에서 떨어지는 폭포다. 1억7천만년전 화산폭발에 의한 지각변동으로 생겼다는 이 폭포는 폭이 2킬로미터, 높이 70~80미터의 270여개 물줄기가 쏟아지는 세계최대의 폭포로 알려져 있다. 1초당 떨어지는 수량이 1천5백에서 2천톤으로 북미의 나이아가라,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보다 많다고 한다.

이 폭포는 주변에 원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살았지만 자연속에 묻혀 있다가 1백여전 산토스 뒤몽이란 사람이 경비행기로 이 위를 지나다 발견, 세상에 알려졌다. 원주민들 사이에 폭포에 관한 많은 신화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악마의 목구멍’이란 별명을 만들어 낸 얘기가 있다. 이과수 강을 건너거나 고기잡이를 하던 원주민들이 떠내려와 물안개를 내뿜는 폭포로 떨어져 수없이 죽어갔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러자 원주민들 토속신앙으로 숭배하던 뱀신에게 ‘악마의 목구멍’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하늘위의 고대도시 ‘마추픽추’

남미대륙 서북부에 위치한 페루는 잉카족이 가장 번성했던 중심지이며 사실상 잉카문명의 요람이다. 기원전 수세기부터 이곳에 정착한 잉카족은 15세기 스페인에 정복되기전까지 인구 2천만의 남미 최대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1471년 마지막 왕 파차쿠티가 스페인 정복군에 피살되면서 잉카제국은 멸망했다. 지금 페루의 수도 리마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세워졌고 잉카제국의 수도는 리마의 동쪽 4백여킬로, 해발 3천4백미터 고산지대에 자리잡은 쿠스코였다. 쿠스코에는 잉카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지만 스페인에 의해 파괴되거나 천주교 성당으로 바뀐 곳도 있는 등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페인이 통치하는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마추픽추는 도시 전체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해발 2천4백미터 고산 정상에 세워진 마추픽추는 백여년전 미국 탐험가 허아

글·사진 윤기병 (본회부회장)



이과수 폭포에서 부인과 함께 선 필자.

럼 빙엄이 발견하기 전까지 밀림으로 덮여 있었다. 리마에서 마추픽추까지 가는데는 꼬박 하루가 걸린다. 리마에서 쿠스코까지 비행기로 2시간, 쿠스코에서 우르밤바까지 자동차로 2시간, 우르밤바에서 마추픽추까지 기차로 2시간 그리고 다시 버스로 꾸불꾸불한 가파른 경사길로 30분을 올라가야 한다. 잉카제국은 왜 이 험난한 산꼭대기에 이도시를 세웠을까. 이 의문에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마추픽추는 기온이 겨울에도 쿠스코보다 따뜻해 왕이 겨울을 지내기 위해 건설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 모양이다.

‘하늘위의 도시’로 불리는 마추픽추는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깊은 산 정상에 세워졌지만 천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자족 도시였다. 도시 위 아래의 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고 샘을 파 수로와 물을 저장하는 못도 여러 곳에 두었다. 사는 집은 물론 곡물을 수확해 저장하는 창고까지 지었다. 쿠스코까지는 물론 다른 마을로 연결되는 80여개 인도를 뚫어 차스키로 불리는 메신저들이 간단한 물건과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마추픽추는 잉카제국이 멸망하면서 주민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4백여년간 밀림속에 묻혀있다가 백여년전 발굴되면서 ‘하늘위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마야문명의 본거지 유카탄 반도

멕시코 동쪽의 카리브해로 뻗은 유카탄 반도는 마야문명의 유적이 가장 많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치첸이트사, 옥스말, 칼라크물, 팔렝게등 4개 도시외에도 원시림 곳곳에 많은 유적과 유품들이 숨겨져있고 지금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마추픽추 유적 전경.

이가운데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 ‘엘 카스틸로’ (일명 쿠쿨칸)는 세계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도 꼽히는 마야문명의 상징이기도 하다. 기원전 5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이 돌탑은 정방형의 45도 각도로 쌓아 올렸으며 동서남북 4면 91개 계단 총364개, 탑 꼭대기의 신전을 합쳐 365개로 되어 있다. 탑이 서있는 방향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고 태양력에 따른 사계절과 1년 365일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요즘의 천문학과도 일치하며 쌓아 올린 공법도 고도의 수학과 역학이 응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신기한 것은 북쪽을 향한 탑 맨아래에 뱀머리가 받치고 있는데, 매년 춘분인 3월21일 탑 오른쪽 그림자가 뱀 머리위로 연결되어 뱀 모양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탑 꼭대기의 태양신전을 지키는 뱀 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아마 고대 마야족이 태양신과 함께 뱀신도 숭배하며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야의 본거지 유카탄 반도에 100여년전 한국 사람들이 밭을 들어 놓았다는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 자세히 들어 보았다. 구한말 1905년 1천여명의 한국인들이 가족이민으로 이곳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하와이로 많이 가던 노동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이 양반이거나 상민층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던 ‘황성신문’에 일본인이 낸 이민안내 광고를 보고 수속을 밟아 배를 타고 70여일 만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는 달리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농장의 노동자로 팔려 갔고 가족과도 헤어져 참담한 노예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멕시코 정부가 1910년 발표한 노예해방 조치에 따라 이들은 5년 만에 노예신분에서 벗어나 원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정착했다고 한다. 백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우리 성씨를 가지고 지구 반대편 유카탄 반도의 밀림속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다.

카스트로의 나라 쿠바

쿠바는 50년대 초 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이후 60년 넘게 1인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사회주의 나라다. 지금은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지배하고 있어 ‘카스트로의 나라’로도 불린다.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배로 2시간 거리에 있지만 미국과 60년 넘게 국교가 없는 ‘가깝고도 먼 사이’다. 60년대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구 소련의 미사일 기지건설을 봉쇄함으로써 빚어진 미사일 위기이후 ‘적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미국인들은 관광을 위해 가는 것조차 꺼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번 여행일정에 쿠바가 포함된 것이 조금은 흥미로웠다. 자정넘어 도착한 수도 하바나공항은 다른나라의 공항에 비해 어둡고 위키 토키를 든 제복의 직원들이 많이 깔려 있어 삼엄한 분위기다. 우리 한국 관광객 일행은 명패를 단 안내원을 따라 별 탈없이 입국수속을 끝냈다.

다음날 아침 시작된 하바나 시내관광의 첫번째 방문지는 소설 ‘노인과 바다’로 잘 알려진 미국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집이다. 21년간 살면서 많은 작품을 썼던 집에는 가구, 책상, 타이프라이터, 메모지까지 전시돼있고, 정원에는 즐겨 타던 요트도 갖다 놓았다. 이어 헤밍웨이가 자주 가던 해변의 식당에 가서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했다는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었다.

하바나 시내관광은 혁명기념탑과 신·구시가지 둘러 보는 것인데, 곳곳에 아르헨티나출신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초상이 눈에 많이 띄었다. 체 게바라가 쿠바혁명때 카스트로를 도와 백의종군으로 활동했다지만 카스트로 초상보다 많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바나 시내에는 페허나 다름없는 옛날 호화저택과 수리못한 낡은 집들의 전시장 같다. 혁명때 쫓겨난 몇백만의 난민들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 고향에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쿠바 안내원의 얘기다. 쿠바여행에의 하이라이트가 쿠바와 견원지간인 미국 작가 헤밍웨이의 발자취를 둘러 본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허전한 느낌이다. [4]

www.nonghyup.com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의 가치



회우동정

가나다순

한국인 첫 '국제 에미상' 수상



김인규(전 KBS 사장)회우=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미국 뉴욕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2년 국제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국제에미상은 미국 국제 TV과학예술기구(IATAS)가 외국 우수 TV프로그램에 주는 상으로 올해로 40회를 맞았다.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수상



손일근(가천대학교 초빙 교수·사진위)원로회우·홍원기 본회회장(사진아래)=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 27회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 시상식에서 손일근 원로회우는 특별상을, 홍원기 회장은 한길상을 수상했다.



4·19 유공자로 건국포장 받아



안건혁(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사진위)회우·이명동(전 동아일보 사진부장·사진아래)원로회우= 지난 10월 2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4·19혁명 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4·19혁명의 계획과 시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4·19혁명유공자 40명(부상자 10명 포함)이 선정됐다. 이날 정부 포상은 2010년 4·19 혁명 50주년 포상 당시 신청을 못했거나 탈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나눔캠페인 업무협약체결



양휘부(한국케이블 TV 협회장)회우= 10월 5일 서소문로 협회대회의실에서 (1)10월 11~17일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공동취재단(총29명) 발대식 거행.

(2)10월8일 사랑의 열매회관 회의실에서 이동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장과 나눔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

최고경영자과정 회장취임



장기효(신아일보 사우회 명예회장)회우= 지난 5월부터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50기 회장으로 활약.

제14회 장영실 국제과학상 시상



제재형 본회고문(장영실 기념사업회 상임고문)= (1)11월 16일 충남 아산시 장영실 과학관에서 거행된 제14회 국제과학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 심사보고를 하고 새로운 과학 발명자 6명에게 장영실과학상을 시상했다.

(2)11월 8~11일 일본 고치시(高知市)에서 열린 '한국고아의 어머니'고 윤학자 동상제막식 및 사회복지학술 심포지엄에 방일단장으로 임원 20여명과 함께 다녀왔다. 제 고문은 유엔 '세계고아의 날' 제정 한일공동 추진위 한국측 공동의장이다.

울산광역매일신문 객원주필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전 일간스포츠 편집 부국장)회우= 지난 11월1일 자로 울산광역매일신문 객원주필로 위촉받고 '천상기 칼럼'을 2면에 연재하고 있다.

영덕 향토문예지 '土壁' 9집 발간



한영탁(전 세계일보 논설위원)본회 논설위원= 지난 11월 10일 영덕향토문예지인 土壁 9집을 발행했다. 토벽은 재향 및 출향 영덕인들이 쓴 시 시조 한시 수필 콩트 평론 시론 논문들을 모아 매년 발행해 오고 있다.

노재승회우 별세



노재승 회우가 지난 11월 23일 충남대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11월 24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장지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옥천리 선영. 고 노재승 회우는 1939년 12월 28일 충북 청주 출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한양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65년 대한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한 고인은 내외통신 보도부장, 내외경제신문 부국장대우 중소기업부장, 정경부장, 사회생활부장, 편집부국장대우,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슬하에 부인 최지선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4]

언론사 사우회 송년모임 안내

- 경향신문 : 12월14일(화)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국민일보 : 내년 신년회로 대체
- 대한일보 : 미정
- 동아일보 : 12월 10일(월)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서울신문 : 12월 13일(목)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신아일보 : 12월 6일(목) 오후 6시 이따리아노 뷔페
- 연합뉴스 : 12월말 예정
- 중앙매스컴 : 11월 30일(금) 오후 6시 경부고속터미널 옥상
- 한국경제 : 내년 1월 중순 신년회로 대체
- 한국일보 : 12월 5일(수) 오후 5시 서울 한진빌딩 신사옥 26층
- 헤럴드미디어 : 12월 10일(월)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CBS : 12월 18일(화) 오후 6시 신문로 황우존 별관
- KBS : 12월 17일(월) KBS본관
- MBC : 12월 13일(목) 오후 6시 서울 마포가든호텔 2층 무궁화 홀

본회 기우회 연말대회 성황

대한 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 연말 바둑대회가 11월26일(월) 오후2시 종로3가 바둑세계기원에서 열렸다.

금년으로 3번째를 맞이한 이번대회는 A조(1급-3급)와 B조(4급이하)로 나누어 열전을 치른 결과 A조에서 우승 이상우 회원, 준우승 이시현 회원, 3위 정기정 회원이, B조에서 우승 이용화 회원, 준우승 이성호 회원, 3위 길윤석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입상자 외에 이날 참석한 회원은 고덕환, 김세경, 김윤재, 문준호, 백환기, 이억순, 이종기, 최종수 회원등이다. 바둑게임이 항상 그렇듯이 이날 대회도 모두들 한수



한수 최선을 다했지만 많은 탄식과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대회를 기약했다. 대회가 끝난후 국립관 한일정에서 불낙전골을 안주삼아 뒤풀이가 계속됐는데 화두는 역시 안철수와 12·19대선의 향방이었다.

주소·전화번호 변경

김정일 회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8번지 대림빌라 1동 301호
전화 02-426-4352 017-534-4352
박석흥 회우= 휴대전화 변경 010-2398-2271
이억순 회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0 성원빌라 나동 201호(우411-731)
이세환 회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85-1 한성2차아파트
201동 108호 (우446-735) 전화 031-8001-9558 011-9860-9558
최원각 회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104-9 1층 (통일로 389-9)

저서 보내주신 분

김후란 회우= 김후란 시집 '새벽, 창을 열다'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 괄호안 납입연도)

김종범(12,13) 조관희(13)
노재승(12) 최희조(12)
이대영(13) 황우권(12,13)
이민희(12)
이상호(12)
이전문 (8,9,10)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도시 세종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예스24) www.yes24.co.kr
 인터파크 도서) book.interpark.com



절찬리
판매중

한국에 대해 이렇게 진심어린 사과,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인 일본인은 없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대은(文化大恩)의 나라’ ‘형님의 나라’ ‘스승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그 대은을 짓밟고 귀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귀국에 속죄할 것입니다.
 최대의 예(禮)를 다하여 영원히 귀국과 우정을 맺고 귀국의 발전을 위해 진력할 결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로소 일본이 올바르게 번영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중에서

이케다 다이사쿠의 한국예찬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연설과 대담록, 한국에 관해 쓴 에세이와 시,
 그리고 한글, 고려청자, 한복 등 한국미(韓國美)에 대한 예찬을 담은 글 등을 엮은 책이다.
 또한 이 책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날날이 밝히는 등, 올바른 역사관을 조명하고 있다.

저자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 출판사 (주)조선뉴스프레스 | 면수 216면 | 판형 120×190(양장제본) | 발행일 2012년 7월 31일 | 가격 12,000원 | ISBN 978-89-91491-80-9 03040